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지 형 주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연가곡으로 바라본
브람스의 《8개의 가곡과 노래들》
(Op.58) 분석 연구

201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반 주 학 과
정 소 현

연가곡으로 바라본
브람스의 《8개의 가곡과 노래들》
(Op.58) 분석 연구

지 형 주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반주학과

정 소 현

인 준 서

정소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8년 11월

심사위원장 신인선 (인)

심사위원 권오연 (인)

심사위원 지형주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브람스(Johannes Brahms, 1833-1897)의 《8개의 가곡과 노래들》(8 *Lieder und Gesänge*, Op.58)의 분석적 연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작품은 1곡 〈눈먼 암소〉(*Blinde Kuh*), 2곡 〈비 내리는 동안〉(*Während des Regens*), 3곡 〈냉담한 여인〉(*Die Spröde*), 4곡 〈오 오라, 사랑스러운 여름밤아〉(*O komme, holde Sommernacht*), 5곡 〈우울한 마음〉(*Schwermut*), 6곡 〈골목에서〉(*In der Gasse*), 7곡 〈지나가버린〉(*Vorüber*), 8곡 〈세레나데〉(*Serenade*)로 총 8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871년에 작곡되었다.

이 작품은 브람스가 율리(Julie Schumann, 1845-1872)에게 실연을 당한 후에 작곡되었기에 그의 정서가 담겨있다. 브람스의 다른 가곡들보다 ‘가사 그리기’가 잘 되어 있는데 이는 그가 그 당시에 사랑에 빠져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녀를 찾는 1곡 〈눈먼 암소〉로 시작해 행복감에 가득찬 4곡 〈오 오라, 사랑스러운 여름밤아〉를 지나 5곡 〈우울한 마음〉부터는 그녀를 잃은 상실감에 슬퍼하고 8곡 〈세레나데〉에서는 그녀에게 매달리는 내용으로 마무리된다. 시의 내용으로 보아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되는 듯한 인상을 준다.

본 논문에서는 브람스가 시의 내용을 음악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1곡 〈눈먼 암소〉에서는 반음계와 갑작스러운 도약을 하는 성악선율, 반주부의 끊임없는 16분음표의 사용과 붓점을 통해 조급함을 표현하고 있다. 2곡 〈비 내리는 동안〉에서는 계속된 고음의 성악선율과 반주부의 꾸준한 스타카토가 ‘가사 그리기’로 제목의 이미지를 담아내고 있다. 3곡 〈냉담한 여인〉에서는 단조차용화음과 반음계의 선율이 화자의 마

음을 대변하고 있고 4곡 〈오 오라, 사랑스러운 여름밤아〉에서는 *p*의 셈여림으로 비밀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5곡 〈우울한 마음〉에서는 순차적으로上行과 하행을 하는 성악선율과 상심한 화자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저음의 반주부가 제목의 느낌과 부합한다. 6곡 〈골목에서〉는 비교적 짧은 프레이징의 성악선율과 단순한 반주부가 공허함을 나타내준다. 7곡 〈지나가버린〉에서는 부드러운 성악선율이 달콤한 꿈을 표현하고 있으며 반주부에서는 급격하게 바뀌는 반주형태가 시의 대조를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마지막 8곡 〈세레나데〉의 성악선율은 단조롭고 순차적이며 스타카토의 반주부가 치터(zitter)의 음향을 모방하며 전체적으로 사랑의 노래를 묘사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브람스의 음악적 특징인 유절형식과 3부형식, 민요에 대한 애정을 찾아볼 수 있다. 지속음, 대위법과 같은 바로크적인 기법과 당김음, 헤미올라와 같은 리듬적 특징도 나타난다. 특히 이 작품의 배경을 통해 실연당한 브람스의 내면세계를 볼 수 있으며 그의 다른 가곡들과 다르게 ‘가사 그리기’가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작품은 연가곡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이야기를 봤을 때 하나의 연가곡적인 성격을 가진 가곡이라고 볼 수 있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II. 이론적 배경	4
1. 작품배경	4
2. 시인들	7
III. 《8개의 가곡과 노래들》(8 <i>Lieder und Gesänge</i>) Op.58의 분석	9
1. 제1곡 〈눈먼 암소〉(<i>Blinde Kuh</i>)	
1) 시의 구성 및 내용	9
2) 곡의 구성 및 분석	11
2. 제2곡 〈비 내리는 동안〉(<i>Während des Regens</i>)	
1) 시의 구성 및 내용	18
2) 곡의 구성 및 분석	19
3. 제3곡 〈냉담한 여인〉(<i>Die Spröde</i>)	
1) 시의 구성 및 내용	26
2) 곡의 구성 및 분석	29
4. 제4곡 〈오 오라, 사랑스러운 여름밤아〉(<i>O komme, holde Sommernacht</i>)	
1) 시의 구성 및 내용	36
2) 곡의 구성 및 분석	38

5. 제5곡 <우울한 마음> (<i>Schwermut</i>)	
1) 시의 구성 및 내용	45
2) 곡의 구성 및 분석	46
6. 제6곡 <골목에서> (<i>In der Gasse</i>)	
1) 시의 구성 및 내용	52
2) 곡의 구성 및 분석	54
7. 제7곡 <지나가버린> (<i>Vorüber</i>)	
1) 시의 구성 및 내용	60
2) 곡의 구성 및 분석	61
8. 제8곡 <세레나데> (<i>Serenade</i>)	
1) 시의 구성 및 내용	69
2) 곡의 구성 및 분석	71
IV. 결론	79
참고문헌	82
ABSTRACT	85

표 목 차

[표 1] 《8개의 가곡과 노래들》 시인과 작곡 및 초연	5
[표 2] 1곡 〈눈먼 암소〉 시의 내용과 곡의 구성	11
[표 3] 2곡 〈비 내리는 동안〉 시의 내용과 곡의 구성	19
[표 4] 3곡 〈냉담한 여인〉 시의 내용과 곡의 구성	29
[표 5] 4곡 〈오 오라, 사랑스러운 여름밤아〉 시의 내용과 곡의 구성	38
[표 6] 5곡 〈우울한 마음〉 시의 내용과 곡의 구성	46
[표 7] 6곡 〈골목에서〉 시의 내용과 곡의 구성	54
[표 8] 7곡 〈지나가버린〉 시의 내용과 곡의 구성	61
[표 9] 8곡 〈세레나데〉 시의 내용과 곡의 구성	71

악 보 목 차

[악보 1-1] <눈먼 암소> 마디1-4a	12
[악보 1-2] <눈먼 암소> 마디8b-18	13
[악보 1-3] <눈먼 암소> 마디19-21a	14
[악보 1-4] <눈먼 암소> 마디21b-31a	15
[악보 1-5] <눈먼 암소> 마디22, 32, 마디31, 41	16
[악보 1-6] <눈먼 암소> 마디41b-51	17
[악보 2-1] <비 내리는 동안> 마디1-4	20
[악보 2-2] <비 내리는 동안> 마디5-7	21
[악보 2-3] <비 내리는 동안> 마디10-12	22
[악보 2-4] <비 내리는 동안> 마디13-15	23
[악보 2-5] <비 내리는 동안> 마디16-23	24
[악보 2-6] <비 내리는 동안> 마디24-34	25
[악보 3-1] <냉담한 여인> 마디1-4a	30
[악보 3-2] <냉담한 여인> 마디4b-11a	31
[악보 3-3] <냉담한 여인> 마디11b-18	32
[악보 3-4] <냉담한 여인> 마디22b-31	34
[악보 3-5] <냉담한 여인> 마디31b-35a	35
[악보 3-6] <냉담한 여인> 마디35-39	35
[악보 4-1] <오 오라, 사랑스러운 여름밤아> 마디1-9a	39
[악보 4-2] <오 오라, 사랑스러운 여름밤아> 마디9b-17a	40
[악보 4-3] <오 오라, 사랑스러운 여름밤아> 마디17b-25a	42
[악보 4-4] <오 오라, 사랑스러운 여름밤아> 마디25b-35a	43
[악보 4-5] <오 오라, 사랑스러운 여름밤아> 마디33-36	44

[악보 5-1] <우울한 마음> 마디1-5b	47
[악보 5-2] <우울한 마음> 마디5b-17a	48
[악보 5-3] <우울한 마음> 마디17b-23a	49
[악보 5-4] <우울한 마음> 마디23b-25a	50
[악보 5-5] <우울한 마음> 마디25b-30a	51
[악보 5-6] <우울한 마음> 마디30-32	51
[악보 6-1] <골목에서> 마디1-16a	55
[악보 6-2] <골목에서> 마디16b-35a	56
[악보 6-3] <골목에서> 마디35b-43	57
[악보 6-4] <골목에서> 마디44b-52	58
[악보 6-5] <골목에서> 마디53-65	59
[악보 7-1] <지나가버린> 마디1-9a	63
[악보 7-2] <지나가버린> 마디9b-16a	64
[악보 7-3] <지나가버린> 마디16b-22a	65
[악보 7-4] <지나가버린> 마디22b-31a	66
[악보 7-5] <지나가버린> 마디31b-40a	67
[악보 7-6] <지나가버린> 마디40-43	68
[악보 8-1] <세레나데> 마디1-14	72
[악보 8-2] <세레나데> 마디15-25	73
[악보 8-3] <세레나데> 마디26-29	74
[악보 8-4] <세레나데> 마디36-47	75
[악보 8-5] <세레나데> 마디48-64	76
[악보 8-6] <세레나데> 마디73-86	77
[악보 8-7] <세레나데> 마디86-91	78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브람스는 낭만주의 시대에 고전적 양식의 전통을 지켜 독자적인 음악세계를 구축한 독일의 대표적인 작곡가이다. 그는 오페라를 제외한 모든 분야를 작곡했는데 그 중에서도 리트(Lied) 작곡가로도 유명하다. 리트는 19세기 시와 음악의 융합을 통해 발전된 음악장르이며 슈베르트(Franz Peter Schubert, 1797-1828), 슈만(Robert Alexander Schumann, 1810-1856)을 거쳐서 브람스에 이른다. 브람스는 200여곡의 가곡을 남겼고 다른 가곡 작곡가들과 달리 잘 알려지지 않은 시인들의 시도 많이 사용하였다.¹⁾ 또한 다른 작곡가나 시인에 의해 변형이 된 시를 사용하였다.²⁾ 그는 사랑, 자연, 죽음에 대한 주제를 즐겨 사용했으며, 감정적으로 절제된 내면적이고 애수에 찬 가사들을 선택했다.³⁾

브람스의 《8개의 가곡과 노래들》(8 *Lieder und Gesänge*, Op.58)은 그의 가곡의 특징대로 유명하지 않은 시인의 시를 사용했으며 그의 사랑의 아픔이 담겨있어 흥미를 끌어올리는 작품이다.

브람스는 《8개의 가곡과 노래들》에서 코피쉬(August Kopisch, 1799- 1853), 그로예(Melchior Grohe, 1829-1906), 칸디두스(Karl August Candidus, 1817-1872), 헤벨(Christian Friedrich Hebbel, 1813-1863), 샤희(Adolf Friedri

1) George S. Bozarth, "Brahms, Johannes",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2nd Ed, edited by Stanley Sadie (New York: Macmillan Publishers Limited, 2001), 4: 199.

2) Lorraine Gorrell, *The nineteenth-century german lied*, 심송학 역, (서울: 음악춘추사, 1998), 312.

3) 민은기, 박을미, 오이돈, 이남재, 『서양음악사 2』 (과주: 음악세계, 2014), 141.

ch von Schack, 1815-1894)의 시를 선택해 총 8곡으로 작곡을 했다.

본 논문에서는 브람스가 시의 의미를 곡에 어떻게 담아내었는지를 분석해 보려 한다. 특히 이 작품은 연가곡은 아니지만 8곡 모두 사랑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는데, 슈만의 딸 율리(Julie Schumann, 1845-1872)와 관계된 작품 배경에서 드러나듯이 실연의 상처를 담고 있어 그의 개인적인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곡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서가 음악을 통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브람스의 가곡은 국내에서도 많이 연주되고 이미 연구된 논문도 상당수가 있다.⁴⁾ 그러나 이 곡에 관해서는 국내에 논문이 전무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8개의 가곡과 노래들》을 분석해 브람스 가곡의 음악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은 아직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주제를 연구한다는 학술적 가치를 가지며, 연주자들에게 보다 더 효과적인 연주와 심층적인 해석을 돕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논문에서는 브람스의 《8개의 가곡과 노래들》(8 *Lieder und Gesänge*, Op.58)을 분석 연구한다. 코피쉬의 시는 1곡 〈눈먼 암소〉, 2곡 〈비 내리는 동안〉, 3곡 〈냉담한 여인〉에 사용되었으며, 그로에의 시는 4곡 〈오 오라, 사랑스러운 여름밤아〉, 칸디두스의 시는 5곡 〈우울한 마음〉, 헤벨의 시는

4) 브람스의 국내 석사 논문 중 본 논문에서 다룬 곡과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작품에 대한 논문과 그의 대표적인 작품을 다룬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명희, “브람스의 「Lieder und Gesänge op.57」에 대한 분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이희정, “브람스의 가곡 「네 개의 엄숙한 노래 op.121」에 관한 분석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박혜원, “브람스 《5개의 가곡집 Op.106》의 분석적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지승환, “브람스 《9개의 노래와 가곡 Op.32》 분석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6곡 〈골목에서〉와 7곡 〈지나가버린〉, 샤크의 시는 8곡 〈세레나데〉에 사용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생애에 따른 작품 배경과 시인들을 간략하게 알아보았다.

각 곡의 분석에 앞서 시를 먼저 살펴보았다. 시의 구성과 각운을 설명하고 구성에 따른 내용을 살펴본 후 원시와 번역을 제공하였다.

분석에 있어서는 곡의 구성을 표로 정리하였으며 분석은 형식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성악선율과 반주부의 특징을 설명하고 시의 내용에 따라 음악적으로 어떻게 표현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시의 정확한 원문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 아카이브 사이트를 활용하였다.⁵⁾ 번역은 한 음악회에서 사용된 프로그램 번역을 참고하여 원시의 각운에 맞추어 필자가 직접 수정하였다.⁶⁾ 곡에 나타난 지시어의 해석은 『Dictionary of Music』⁷⁾과 『음악용어사전』⁸⁾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악보의 예는 각곡별로 정리하였다. 곡 분석에 필요한 악보는 페터스(Peters)판을 사용하였다.⁹⁾ 음반은 바리톤 슈미트(Andreas Schmidt)와 피아니스트 도이치(Helmut Deutsch)의 앨범 *Brahms, J.: Lieder* (Complete Edition, Vol. 5)를 참고하였다.¹⁰⁾

5) <http://www.lieder.net/> [2018년 9월 14일 접속].

6) 본 작품에 참고한 번역은 무지카미아 연주회의 “브람스의 시인 다우머, 그 내밀한 결합 - 다우머에 의한 가곡 작품 57, 가곡 작품 58, 첼로소나타 제 2번 작품 99”에서 본 나성인의 프로그램 해설을 참고로 하였다. 2016. 02. 18. 올림푸스홀.

7) 서울대학교 서양음악연구소, 『Dictionary of music』, (서울: 음악세계, 2001).

8) 심성태, 『음악용어사전』 (서울: 현대음악출판사, 1996).

9) Johannes Brahms, *Brahms Songs Vol.3 for High Voice and Piano* (Ger) Frankfurt/m.·Liepzig·London·New York: C. F. Peters.

10) Andreas Schmidt, *Brahms, J.: Lieder* (Complete Edition, Vol. 5)/Sender Freies Berlin. (2000).

Ⅱ. 이론적 배경

1. 작품 배경

브람스의 《8개의 가곡과 노래들》(Op.58)은 5명의 시인들의 시를 텍스트로 한 가곡집이다. 코피쉬의 시는 1곡부터 3곡까지, 그로에의 시는 4곡, 칸디두스의 시는 5곡, 헤벨의 시는 6곡과 7곡, 샤크의 시는 8번으로 작곡되었다. 이 곡의 작곡은 브람스가 38세 되던 1871년에 완성되었고 바로 같은 해 12월에 출판되었다.¹¹⁾

각 곡은 작곡과 초연이 모두 다르다. 그로브 사전(*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에는 8곡이 일괄적으로 1871년에 작곡되었다고 나오나,¹²⁾ 그의 친구이자 평론가인 칼벡(Max Kalbeck, 1850-1921)에 의하면 1곡 〈눈먼 암소〉, 2곡 〈비 내리는 동안〉, 3곡 〈냉담한 여인〉은 1868년 여름에 작곡되었고, 나머지 곡들은 1871년 가을에 작곡되었다고 한다.¹³⁾

초연은 제1곡 〈눈먼 암소〉와 제2곡 〈비 내리는 동안〉은 1872년 1월 27일 비엔나에서 이루어졌고 제3곡 〈냉담한 여인〉은 브람스의 탄생 41주년 전날인 1874년 5월 6일 뮌헨에서 초연되었다. 제8곡 〈세레나데〉는 그로부터 8일 후인 1874년 5월 14일 비엔나에서 초연되었다.¹⁴⁾ 이 작품의 작곡과 초연 날짜를 정리하면 [표 1] 과 같다.

11) 라이프치히(Leipzig)에서 리터-비더만(Jakob Rieter-Biedermann)이 출판했다.

12) George S. Bozarth, "Brahms, Johannes", 4: 216.

13) Natasha Loges, *Brahms and His Poets*, (Woodbridge, UK: Boydell Press, 2017), 250.

14) <http://www.musicandhistory.com/composers/7817> [2018년 9월 10일 접속].

[표 1] 《8개의 가곡과 노래들》 시인과 작곡 및 초연

곡	제목	시인	작곡 및 초연
1곡	눈먼 암소	미상 - 코피쉬 번역	1868 / 1872
2곡	비 내리는 동안	코피쉬	1868 / 1872
3곡	냉담한 여인	미상 - 코피쉬 번역	1868 / 1874
4곡	오 오라, 사랑스러운 여름밤아	그로에	1871 / 연도미상
5곡	우울한 마음	칸디두스	1871 / 연도미상
6곡	골목에서	헤벨	1871 / 연도미상
7곡	지나가버린	헤벨	1871 / 연도미상
8곡	세레나데	샤크	1871 / 1874

이 작품은 슈만과 클라라(Clara Josephine Schumann, 1819-1896)의 셋째 딸인 율리(Julie Schumann, 1845-1872)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그의 생애로 미루어 알 수 있다. 브람스는 스승 슈만의 부인인 14살 연상의 클라라를 사랑했으며 슈만이 죽고 난 후부터 그녀와 그의 가족들을 돌보며 클라라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다. 그동안 그는 12살 연하인 율리에 대한 사랑의 열병을 앓았다.¹⁵⁾ 율리는 클라라를 닮아 굉장한 미인이었으며 감정이 섬세했다. 하지만 몸이 약해 이탈리아에서 휴양중이었는데 그곳에서 이탈리아 백작을 만나 1869년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 소식을 들은 브람스는 깊은 상처를 받았다.¹⁶⁾ 따라서 이 곡에는 사랑에 빠진 감정부터 실연까지가 모두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율리에 대한 짝사랑과 실연에 관계된 작품으로는 《사랑의 노래 왈츠》(*Liebeslieder-Walzer*, Op.52)와 《알토 랩소디》(*Alto Rhapsodie*, Op.53)가 있다. 전자는 그가 사랑에 빠졌던 1869년에 사랑의 성취에 대한 기대와 기쁨

15) George S. Bozarth, "Brahms, Johannes", Vol.4: 184.

16) 니시하라 미노루, 『클래식 명곡을 낳은 사랑 이야기』 (서울: 문학사상사, 2007), 55.

을 표현한 곡이다.¹⁷⁾ 이 곡은 사랑 이야기를 담은 다우머(Georg Friedrich Daumer, 1800-1875) 시에 곡을 붙인 작품으로 피아노 반주가 있는 18개의 성악곡이다. 후자는 율리의 결혼에 대한 반응으로 같은 해에 작곡된 곡이다.¹⁸⁾ 이 곡은 비통한 분위기가 일관되게 흐르며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32)의 시 〈겨울의 하르츠 여행〉 (*Harzreise im Winter*) 을 가사로 한 알토 독창과 남성 합창 그리고 오케스트라 반주로 이루어진 곡이다.¹⁹⁾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8개의 가곡과 노래들》은 《알토 랩소디》가 작곡된 지 2년 후인 1871년에 완성이 되었다. 1868년에 작곡된 사랑에 대한 소망과 실망을 그려낸 1곡 〈눈먼 암소〉, 2곡 〈비 내리는 동안〉, 3곡 〈냉담한 여인〉의 ‘그녀’는 율리를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3곡 〈냉담한 여인〉은 새침하고 도도한 율리를 표현하는 듯 하다. 1871년에 작곡된 무겁고 쓸쓸한 느낌의 5곡 〈우울한 마음〉, 6곡 〈골목에서〉, 7곡 〈지나가버린〉은 실연의 상처로 우울한 브람스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이 곡은 연가곡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실연당한 브람스의 내면세계를 엿볼 수 있다.

17) George S. Bozarth, “Brahms, Johannes”, Vol.4: 184.

18) Ibid.,

19) 유강호, 곽정란, 『비엔나 칸타빌레』 (서울: 삼성출판사, 2008), 183.

2. 시인들

코피쉬(August Kopisch, 1799-1853)는 《8개의 가곡과 노래들》 중 이탈리아 민요시인 1곡 〈눈먼 암소〉와 3곡 〈냉담한 여인〉을 번역하였으며 2곡 〈비 내리는 동안〉을 작시하였다. 1곡 〈눈먼 암소〉와 3곡 〈냉담한 여인〉은 코피쉬가 번역한 이탈리아 민요 번역집 『아그루미』(*Agrumi*, 1838)에 수록되어 있고 2곡 〈비 내리는 동안〉은 그의 『시집』(*Gedichte*, 1836)에 수록되어 있다. 코피쉬는 폴란드의 화가이자 시인으로 이탈리아에서 그림과 고고학을 공부했지만, 손의 부상으로 인해 더는 그림을 그릴 수 없어 문학으로 눈을 돌렸다. 코피쉬는 1822년에 이탈리아로 거주지를 옮겼고 6년 후인 1828년에는 독일에 정착하였다.²⁰⁾ 그래서 그는 이탈리아어와 독일어에 모두 능통하여 이탈리아 시를 번역할 수 있었다. 이후 그는 『시집』으로 인해 유명세를 탔다.²¹⁾

그로에(Melchior Grohe, 1829-1906)는 《8개의 가곡과 노래들》 중 4곡 〈오 오라, 사랑스러운 여름밤아〉를 작시했다. 이 시는 그로에의 시집 『시와 여행』(*Reime und Reisen*, 1861)에 수록되었다. 그로에는 독일의 작가이다. 꾸준한 출판에도 불구하고 그로에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데, 이는 그가 동성애자여서 동성애에 좀 더 관대한 나라를 찾아 떠돌았기 때문이다. 그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처벌을 폐지할 개혁을 주장했지만 야유와 질책이 끊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독일의 바트 홈부르크, 뮌헨을 거쳐 1882년에는 많은 동성애자들이 그러했듯이 이탈리아에 정착을 한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서정시를 쓰기 시작했다.²²⁾

칸디두스(Karl August Candidus, 1817-1872)는 《8개의 가곡과 노래들》

20) https://en.wikipedia.org/wiki/August_Kopisch [10월 1일 접속].

21) <https://www.britannica.com/biography/August-Kopisch> [10월 1일 접속].

22) Natasha Loges, *Brahms and His Poets*, 149-150.

중 5곡 〈우울한 마음〉을 작시했으며 이 시는 『복합 시집』 (*Vermischte Gedichte*, 1869)에 수록되었다. 칸디두스는 독일 출신의 목사이자 시인이다. 그는 슈트라스부르크에서 신학, 철학, 문학사를 공부했으며 대학시절에는 독일 문학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의 시는 괴테, 뮌케(Eduard Friedrich Mörike, 1804-1875), 하이네(Heinrich Heine, 1797-1856)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칸디두스는 많은 신학적 글과 책들을 썼지만, 그가 죽기 2년 전에는 『복합 시집』을 발간하였다.²³⁾

헤벨(Christian Friedrich Hebbel, 1813-1863)은 《8개의 가곡과 노래들》 중 6곡 〈골목에서〉와 7곡 〈지나가버린〉을 작시했다. 헤벨은 극작가이자 시인이며 독일 사실주의를 대표하는 작가이다. 사실주의는 낭만주의의 반동으로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묘사하려는 것으로 그의 작품은 세계의 질서에 맞서는 경향이 있다.²⁴⁾ 헤벨은 독학으로 문학과 철학을 공부했고 하이델베르크에서 법학 공부를 하던 중 학업을 중단하고 함부르크에서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1840년에 출판한 『유디트』 (*Judith*)²⁵⁾가 성공을 거두며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샤크(Adolf Friedrich von Schack, 1815-1894)는 《8개의 가곡과 노래들》 중 8곡 〈세레나데〉를 작시했다. 샤크는 독일의 시인이자 문예수집가이다. 그는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베를린에서 공직 생활을 하던 중 공무에 지쳐 이탈리아, 이집트, 스페인으로 여행을 하였다.²⁶⁾ 1860년대에 독일의 가장 영향력 있고 부유한 예술 후원자 중 한 명이었던 샤크는 평생동안 많은 글을 썼다.²⁷⁾

23) 피중호, 『독일시와 가곡』 (서울: 유로서적, 2007), 445.

24) 김희보, 『세계문학사 작은사전』 (서울: 가람기획, 2002), 252-254.

25) 『유디트』는 5막짜리 비극으로 유대의 위기를 구하기 위해 여주인공이 목숨과 정조를 희생하는 이야기이다.

26) https://en.wikipedia.org/wiki/Adolf_Friedrich_von_Schack [10월 2일 접속].

27) Natasha Loges, *Brahms and His Poets*, 346.

Ⅲ. 작품 분석

1. 제1곡 〈눈먼 암소〉 (*Blinde Kuh*)

1) 시의 구성 및 내용

〈눈먼 암소〉는 원래 작자 미상의 이탈리아 시이다. 이 시는 코피쉬의 이탈리아 민요 번역집 『아그루미』에 수록되어 있다. 1838년에 출판된 『아그루미』는 「이탈리아와 이탈리아 섬들의 모든 민속적 시들」(*Volksthümliche Poesieen Aus Allen Mundarten Italiens Und Seiner Inseln*)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다. 이 시의 제목인 〈눈먼 암소〉는 술래의 눈을 수건으로 가린 뒤, 다른 사람들이 술래에게 ‘장님’이라고 놀려대며 도망 다니는 아이들의 놀이인데,²⁸⁾ 시인은 이 놀이를 사랑하는 여인을 찾아다니는 사람의 이야기로 풀어내었다.

시의 구성은 3연 14행이며 1, 2연은 4행, 3연은 6행으로 구성되어있다. 각운 구조는 1연과 2연의 1행, 2행이 -en과 -ohl로 같고 3행은 -er, -e로, 4행은 -oll, -er로 다르다. 3연은 6행으로 되어 있으며 1-3행은 -t, -uh, -ich로 각각 다르며 4-6행은 모두 -zu로 동일하다.

시의 내용은 사랑하는 여인을 찾는 화자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1연은 그녀를 찾아다니며 시달리는 심정을 표현하고 2연은 원 주위를 돌아다니는 모습과 화자의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그려져있다. 3연은 음악이 달라지고 내용이 점점 상승하여 죽음까지도 언급이 되면서 화자의 간절함을 표현한다. 일반적으로는 아이와 놀이의 관계 때문에 ‘내 아이(mein Kind)’를 지칭하고

28) 권태룡, “보지 못하는 답답함, 놀이로 승화시키다. 까막잡기놀이.” 『문화재청』, 2015 : 33-34.

‘너(du)’라는 말을 쓰지만 1연 3행의 ‘그녀(sie)’라는 말 속에 여인에 대한 뉘앙스가 숨겨져 있다. 브람스의 다른 성악곡들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느낌의 곡이며, 시의 원문과 해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문	해석
<p>Im Finstern geh' ich suchen, Mein Kind, wo steckst du wohl? Ach, sie versteckt sich immer, Daß ich verschmachten soll!</p>	<p>나는 어둠 속에서 찾아요, 내 아이야, 너는 어디에 있니? 아, 그녀는 항상 숨어요, 그래서 나는 몹시 시달려요!</p>
<p>Im Finstern geh' ich suchen, Mein Kind, wo steckst du wohl? Ich, der den Ort nicht finde, Ich irr' im Kreis umher!</p>	<p>나는 어둠 속에서 찾아요. 내 아이야, 너는 어디에 있니? 나는 숨은 곳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원 주위를 떠돌아요!</p>
<p>Wer um dich stirbt, Der hat keine Ruh'! Kindchen erbarm dich, Und komm herzu! Ja, komm herzu, Herzu, komm her herzu!</p>	<p>너 때문에 죽는 사람은 안식을 가질 수 없구나! 아이야, 나를 불쌍히 여겨주어라, 그리고 이쪽으로 오렴! 자, 이쪽으로 오렴,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렴!</p>

2) 곡의 구성 및 분석

민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브람스는 <눈먼 암소> 라는 이탈리아 민요시를 A-A'-B-B'-Coda의 형식으로 담아내었다. A와 A'부분은 도돌이표를 사용해 반복한다. 이 곡의 박자는 2/4이며, 조성은 g단조로 시작해서 간주부터 G장조로 바뀐 후 곡이 끝이 난다. 이 곡의 빠르기말은 '빠르게 (Vivace)'로 반주부 전체에 등장하는 16분음표가 이 곡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 16분음표는 화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눈먼 암소> 의 시의 내용과 곡의 구성을 정리하면 [표 2] 와 같다.

[표 2] 1곡 <눈먼 암소> 시의 내용과 곡의 구성

시		곡				
연	내용	형식	구분	마디	박자	조성
1	어둠속에서 그녀를 찾아 떠돌아다님	A	전주	1-4a	2/4	g단조
2			a	4b-8a		
			b	8b-18		
		A'	전주	1-4a		
a			4b-8a			
b			8b-18			
3	화자의 탄식과 부름	간주		19-21a	2/4	G장조
		B	c	21b-25		G장조→b단조→ G장조
			d	26-31a		
		B'	c'	31b-35		
			d'	36-41a		
Coda		41b-51		C장조→G장조		

(1) A, A'부분

A, A'부분은 마디1부터 18까지로 전주(마디1-4a), a(마디4b-8a), b(마디8b-18)로 구성되어 있다. 어둠속에서 그녀를 찾아 돌아다니며 애가 타는 화자의 모습을 담고 있다. 마디1부터 4a까지의 못갓춘마디로 시작하는 4마디 전주는 '계속 매우 가볍게(*molto leggiero e sempre*)'의 지시어 사용으로 장난스럽고 비밀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16분음표 사용을 통해 분주한 화자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다. 마디1-2 양손의 첫째박과 둘째박에 음들은 순차하행하고 있다. 마디2-3에서는 *decresc.*하며 하행하는 선율 뒤에 마디4에 상행하는 선율이 반진행하며 나오면서 성악선율이 시작한다 [악보 1-1].

[악보 1-1] 〈눈먼 암소〉 마디1-4a

마디4a부터 시작하는 성악 선율은 16분음표인 반주리듬의 배가 되는 8분음표 음가를 위주로 진행된다. 반주부 오른손의 가장 윗 성부는 성악선율과 같은 음정으로 진행된다. 마디8b부터 13까지는 화자의 애타는 마음을 성악 선율의 반음계와 반주부의 당김음으로 표현한다. 마디14-18 성악선율은 앞부분과 다르게 부점을 사용하여 '시달리다(*verschmachten*)'를 표현해주고 반

주부의 오른손에서 그 음형을 모방한다. 성악 선율은 순차 하행(G-F-E^b-D-C-B^b-A-G)하며 완전 중지한다 [악보 1-2] .

[악보1-2] 〈눈먼 암소〉 마디5b-18

5
 Im Fin - stern geh ich su - - chen, mein Kind, wo steckst du
 Im Fin - stern geh ich su - - chen, mein Kind, wo steckst du

8
 wohl? Ach, sie ver - steckt sich im - - mer,
 wohl? Ich, der den Ort nicht fin - - de,

11
 daß ich ver - schmach - ten - - soll, daß ich ver -
 ich irr im Kreis um - - her, ich irr im -

15
 schmach - ten soll!
 Kreis um her!

당김음 사용

모방

(2) B, B'부분

B, B'부분은 마디19부터 51까지로 간주(마디19-21a), c(마디21b-25), d(마디26-31a), c'(마디31b-35), d'(마디36-41a), Coda(마디41b-51)로 나뉘어져 있다. 그녀를 찾지 못해 애가 타는 화자의 탄식과 그녀를 부르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마디19부터 21까지 3마디의 간주는 G장조로 전조되었다. 2성부로 진행되던 반주부 오른손에는 g단조와 G장조의 딸림음인 레(D)가 페달 포인트로 나타난다. 또한 3성부가 되어 점점 상승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왼손에는 마디15-16에 나왔던 부점 리듬이 다시 나오며 점점 더 헤매고 괴로워하는 화자의 모습을 그려낸다. 동시에 이 부점은 새로운 지시어인 '생기 있게(Animato)'의 표현을 극대화한다. 세 마디에 걸친 긴 크레센도는 B부분에 나올 화자의 탄식을 암시한다 [악보 1-3].

[악보 1-3] 〈눈먼 암소〉 마디19-21a

The musical score for measures 19-21a is presented in three systems. The first system shows a vocal line starting at measure 19 with a whole rest, followed by a half note G4 and a quarter note F#4. The tempo marking 'Animato.' is placed above the staff. The second system shows the piano accompaniment starting at measure 19 with a half note G3 and a quarter note F#3. The tempo marking 'Animato.' is placed above the staff. The third system shows the piano accompaniment continuing through measure 21a. The tempo marking 'Animato.' is placed above the staff. The key signature is one flat (B-flat major/D minor). The time signature is 4/4. The score is labeled 'G : I' at the bottom left.

마디21b-25 성악선율은 G까지 3도, 4도 도약을 하여 '죽음(stirbt)'까지 언급을 한다. '죽음'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감7화음이 사용되었고 이는 그

의 괴로움을 짐작하게 한다. 반주부는 양손이 반진행하며 진행된다. 마디 23b-25에서는 b단조로 잠시 전조되고 반음계(E-D-C#-D-C#)의 선율이 나타난다. 이는 ‘안식을 누릴 수 없는(der hat Keine Ruh!)’을 표현하기 위한 화자의 탄식을 담아낸다. 마디26-31은 조용하고 비밀스러운 분위기를 위해 *p*의 썸여림과 ‘가볍게(*leggiero*)’의 지시어가 사용되었다. 성악선율은 4도와 2도 도약을 하고 반주부의 오른손에는 16분쉼표가 사용된다. 마디30-31 반주부의 왼손은 반음계의 선율이 사용되고 반중지한다 [악보 1-4] .

[악보 1-4] 〈눈먼 암소〉 마디21b-31a

B'부분의 유일한 변화는 32마디 성악 선율과 41마디 반주부인데, 32마디 성악선율의 도약은 원래 음인 D와 G앞에 B와 D를 추가하였다. 이 변화는 상승되는 효과를 가져오며 추진력을 더한다. 반주부의 썸여림은 *f*와 크레센도의 위치가 바뀌었다. 나머지 주제는 변화 없이 반복된다. 41마디 반주부 오른손 내성의 하행 선율(F#-F-E)은 코다로 이어지기 위함이며 왼손은 16분음표 하나가 생략된다 [악보 1-5] .

[악보 1-5] 〈눈먼 암소〉 마디22, 32, 마디31, 41

Coda는 마디41a-51까지이며 3연의 5-6행을 노래한다. ‘생기있게’의 지시어가 다시 한 번 나타나며 C장조로 전조된다. 성악선율은 C장조 으뜸화음의 음들을 3도, 5도 도약하고 마지막에는 급격하게 7도 도약을 한다. 이는 화자가 그녀를 애타게 부르고 있는 모습이 묘사된다. 반주부의 오른손은 부점과 16분음표를 사용해 어지럽게 헤매는 화자의 상황을 표현하고 왼손의 상행하는 아르페지오는 곡의 분위기를 극대화한다. 마디48 성악선율이 끝남과 동시에 G장조로 바뀌고 후주가 시작된다. G장조의 으뜸화음으로 부점과 16분음표를 사용해 3옥타브까지 화려하게 올라간다. 이는 계속해서 고조되는 분위기를 극적으로 묘사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마디50 3옥타브에 이른 으뜸화음의 화성은 글리산도로 두 번 힘차게 연주되고 곡이 마무리된다 [악보 1-6] .

[악보 1-6] 〈눈먼 암소〉 마디41b-51

41 *animato.* 3도 3도

zu, ja komm her - zu,

cresc. animato

C : V

44 5도 7도

her - zu, komm her -

48 zu!

f *sva*

G : I

2. 제2곡 〈비 내리는 동안〉 (*Während des Regens*)

1) 시의 구성 및 내용

〈비 내리는 동안〉은 1번곡과 달리 코피쉬의 시이다. 이 시는 1836년에 발표한 코피쉬의 『시집』 5부에 10번째로 수록되어 있다. 코피쉬는 리스페티 중 하나의 텍스트나 모티브를 빌려와서 이 시를 썼다. 리스페티(Rispetti)란 이탈리아의 민요 혹은 민요풍 노래의 일종으로 대부분은 연인에게 보내는 애정과 존경을 내용으로 하는 노래 형식이다.²⁹⁾

시는 총 8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운 구조는 1행과 4행은 각각 -a, -et으로 다르고 2, 3행은 -sse, 5, 6행은 -en, 7, 8행은 -er로 쌍운을 이루고 있다.

시의 내용은 사랑하는 그녀와의 시간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연인과 같이 있고 싶은 욕망에 비가 더 강하고 강하게 내려 그녀를 자신의 집 지붕 아래 잡아두고 싶은 화자의 귀여운 마음이 돋보인다. 시의 원문과 해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문	해석
Voller, dichter tropft ums Dach da, Tropfen süßer Regengüsse, Meines Liebchens holde Küsse Mehren sich, je mehr ihr tropfet! Tropft ihr, darf ich sie umfassen, Laßt ihr's, will sie mich entlassen; Himmel, werde nur nicht lichter, Tropfen, tropfet immer dichter!	가득히, 세차게 지붕에 빗방울이 떨어진다, 달콤하게 내리는 소나기의 빗방울들, 내 사랑하는 연인의 부드러운 입맞춤은 더 많아진다, 빗방울이 더 많아질수록! 빗방울이 계속 내리면, 나는 그녀를 안아도 되고, 빗방울이 그만 그치면, 그녀는 나를 떠날 것이니; 하늘아, 그저 밝아지지만 말아라, 내려라, 내려라, 점점 더 세차게!

29) 삼호뮤직[편], 『클래식음악용어사전』 (서울: 삼호뮤직, 2001), 97.

2) 곡의 구성 및 분석

브람스는 8행으로 된 〈비 내리는 동안〉을 2행씩 나누어 A-A'-B-A'' 형식으로 담아내었다. 조성은 B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D^b 장조로 일관되게 진행하고 B부분은 조성이 자주 변화한다. 빠르기는 '생기있게(Lebhaft)'이며 박자는 6/4과 9/4가 빈번하게 변화하면서 '생기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동시에 이는 들떠있는 화자의 두근거림이 불규칙하게 변하는 것의 표현으로 볼 수도 있다. 반주부에는 끊임없이 스타카토가 나오는데 이는 제목에 나타난 '비'를 암시한다. 〈비 내리는 동안〉의 시의 내용과 곡의 구성을 정리하면 [표 3] 과 같다.

[표 3] 2곡 〈비 내리는 동안〉 시의 내용과 곡의 구성

시		곡				
행	내용	형식	구분	마디	박자	조성
1-2	지붕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풍경	A	진주	1-2	6/4	D ^b 장조
			a	3-4		
			b	5-7	9/4	
3-4	연인과의 달콤한 시간	A'	a'	8-9	6/4	
			b'	10-12	9/4	
5-6	화자의 걱정	B	c	13-15	9/4	
			d	16-19	9/4	
			d'	20-23	6/4	
7-8	비가 더 많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	A''	a''	24-25	6/4	D ^b 장조
			b''	26-27	9/4	
			b'''	28-34	6/4	

(1) A부분

A부분은 마디1부터 7까지이며 전주(마디1-2), a(마디3-4), b(마디5-7)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붕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성악 선율은 단순한 리듬 안에서 도약이 많은 선율로 비가 내리는 것을 노래하고 있으며 반주부에서는 스타카토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묘사한 ‘가사 그리기’가 나타나고 있다.

두 마디의 전주는 *p*로 시작하여 D^b 장조의 으뜸화음을 아르페지오 음형으로 풀어내며 기분 좋은 빗방울 소리를 표현한다. 마디3부터 시작하는 성악 선율은 전주에 나왔던 으뜸화음의 펼침 화음으로 시작한다. 선율은 아르페지오로 F음까지 도약($F-A^b-D^b$)한 후에 순차적으로 하행($F-E^b-D^b-C$)한다. 반주부는 전주와 같은 분위기로 계속되지만 오른손이 옥타브를 높여서 두음씩 조금 굽어진 빗방울을 표현하고 있다. 반주부 왼손을 기준으로 오른손은 상승하는 라인을 가지며 마디3 크레센도 이후에 4마디 악센트는 떨어진 빗방울의 표현이다 [악보 2-1].

[악보 2-1] 〈비 내리는 동안〉 마디1-4

Lebhaft.

Vol - ler, dich - ter tropft ums Dach da,

톤 페인팅 : 빗소리

p molto leggiero.

stacc.

마디5에서 성악 선율의 ‘빗방울(Tropfen)’은 F음으로, ‘소나기(Regengüsse)’는 A음까지 올라간다. 빗방울보다 소나기가 훨씬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을 표현하고있다. 반주부는 마디3-4와 비슷하게 진행되나 많아진 빗줄기를 9/4로 바뀐 박자에서 생동감있게 묘사하고 있다. 마디7에서 떨어진 빗방울의 표현을 하행하는 선율로 그려내고 단락을 맺는다 [악보 2-2] .

[악보 2-2] 〈비 내리는 동안〉 마디5-7

5

Trop — — fen sü — ßer Re — — gen-güs — se;

p

(2) A'부분

A'부분은 마디8부터 12까지이고 a'(마디8-9), b'(마디10-12)로 나뉘어져있고 연인과의 달콤한 시간을 노래하고 있는 부분이다. 내용에 따른 성악선율과 반주의 변화는 보이지 않으며 A부분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마디11 성악 선율은 ‘더(mehr)’라는 단어에 꾸밈음을 사용해 생기있는 느낌을 더하였다. B부분으로 이어지는 마디12의 반주부는 G와 A^b을 반복하며 점점 작아져서 B부분으로 연결시킨다 [악보 2-3] .

[악보 2-3] 〈비 내리는 동안〉 마디10-12

(3) B부분

B부분은 마디13부터 23까지이며 c(마디13-15), d(마디16-19), d'(마디20-23)로 구성된다. 비가 그쳐 그녀가 떠나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화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나는 그녀를 안아도 되고(darf ich sie umfassen)’의 긍정적인 내용에 따라 D장조로 전조되었고 지시어 ‘달콤하게(*dolce*)’를 사용하여 로맨틱한 분위기가 극대화된다. 도약이 많은 A부분과 달리 B부분의 성악 선율은 점2분음표와 온음표를 사용해 감미롭게 호소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짧은 11마디동안 박자와 조성이 자주 변화한다. B부분으로 바뀌었음에도 박자가 9/4로 유지되었는데 그 결과 음의 길이가 늘어나서 ‘방울져 떨어지다(Tropft)’를 강조하게 된다. 스타카토로만 연주되던 반주부는 긴 화성을 사용해 ‘달콤하게’의 느낌을 더하였다. 마디14-15의 박자는 6/4로 바뀌고 단조적 차용화음인 i도와 부속화음의 화성을 사용하고 V도로 해결한다. 마디15의 스타카토는 마디12에 보이던 음형이 반음 더 높게 나타난다 [악보 2-4].

[악보 2-4] 〈비 내리는 동안〉 마디13-15

13

Tropft ——— ihr, darf ich sie um - fas - - sen,

dolce

D : V7 I i(차용화음) vii^o₄/V V

마디16의 조성은 ‘그녀는 나를 떠날 것이니(will sie mich entlassen)’의 부정적인 내용에 따라 d단조로 전조되었다. 또한 반주부의 화성은 감7화음을 사용하였다. 마디17부터 박자가 6/4로 바뀌었고 마디18 B^b 장조로 전조되었다. 성악선율의 ‘떠나게하다(entlassen)’라는 단어를 두 마디에 걸쳐 확장시켰다. 이는 화자가 절규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성악 선율은 반음계로 상행하고 반주부는 크레센도하며 왼손이 하행한다. 단어가 끝날때쯤 후두둑하는 빗소리는 사라진다. 마디20에서는 ‘그녀는 나를 떠날 것이니(will sie mich entlassen)’를 앞보다 더 길게 반복하며 클라이막스에 이르고 앞과 동일하게 빗소리를 표현하는 반주부는 중단된다. 점차 원조인 D^b 장조로 돌아가고 *f*이 후 작아지며 마무리한다 [악보 2-5].

[악보 2-5] 〈비 내리는 동안〉 마디16-23

(4) A''부분

A''부분은 마디24부터 34까지이고 a''(마디24-25), b''(마디26-27), b'''(마디28-34)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녀와 오랫동안 같이 있기 위해 비가 더 오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을 담고있다. 마디24-25의 성악선율은 A부분과 동일하고 반주부의 오른손은 슬러 스타카토를 사용해 부드럽고 흘러가는 느낌을 준다. 또한 반주부에 8분음표가 더 많아졌는데 이는 더 많아진 비의 양을 뜻한다.

마디26은 박자가 9/4로 바뀌고 '생기있게(*animato*)'의 지시어가 성악선율과 반주부에 강조되었다. 반주부의 오른손은 a''보다 음이 더 많아져 8분음표 스타카토가 섬없이 나옴으로써 점점 더 세찬 비를 표현한다. 성악선율의 '빗방울(Tropfen)'은 A부분과 유사하게 음절이 늘어졌고 반주부의 왼손은 마디28까지 반음계 선율로 하행한다. 마디28에 '점점 더 세차게(*immer dichter*)'가 박자를 늘여서 반복되고 *p*로 진행되며 마디29-30은 '세차게'를 점음표

까지 늘여서 반복하고 점점 작아지며 하행한다. 반주부의 빗소리 반주는 더 단단히 결속되어서 셈여림이 줄어들어도 흥분된 분위기는 계속 유지된다.

마디31 박자가 6/4로 돌아가고 반주부는 후주를 시작하고 성악선율은 반주부를 따라오는 것처럼 보인다. 반주부는 계속 상행하다가 D^b장조의 으뜸화음을 크게 세 번 연주하고 곡이 끝이 난다 [악보 2-6].

[악보 2-6] 〈비 내리는 동안〉 마디24-34

24 *animato.*
Him - mel, wer - - de nur - nicht lich - ter Trop - - fen, trop - fet

p leggiero
animato sempre
반음계 하행 →

27 im - mer dich - - ter, im - - mer, im - mer

piu p sempre

29 dich - - - - ter dich - - - - ter.

31 dich - - - - ter!

3. 제3곡 〈냉담한 여인〉 (*Die Spröde*)

(1) 시의 구성 및 내용

〈냉담한 여인〉은 1번 곡 〈눈먼 암소〉와 마찬가지로 익명의 시이며 코피쉬의 이탈리아 번역 시집 『아그루미』에 실려있다. 이 시는 칼라브리아의 민요시를 번역한 것이며 칼라브리아는 이탈리아 반도의 최남부 이오니아해와 티레니아해 사이에 있는 지방이다.³⁰⁾

시는 총 3연 15행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연은 5행씩이다. 각운은 1연의 1, 2행은 -in, -en로 다르고 3, 4, 5행은 -e로 같다. 2연의 1, 2, 3, 5행은 -e로 같고 4행은 -en이며, 3연의 1, 2, 3, 5행은 -e로, 4행은 -ern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의 원문과 해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0)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49257&cid=40942&categoryId=34083>
[2018년 9월 29일 접속].

원문	해석
<p>Ich sahe eine Tigrin Im dunkln Haine, Im dunklen Haine Und doch von meinem weinen Wie wurde zahm sie!</p> <p>Sah auch vom Wasser Steine, Ja Marmorsteine, Die harten Steine! Wie Tropfen fiel nach Tropfen, So weich wie Rahm sie!</p> <p>Und du so eine zarte, Holdsel'ge Kleine, Holdsel'ge Kleine; Du lachst zu meinem bitterm, Ja bitterm Gram hie!</p>	<p>나는 한 마리의 암호랑이를 보았지 어두운 숲속에서, 어두운 숲속에서 하지만 내 눈물로 그녀를 길들였지!</p> <p>나는 딱딱한 돌도 보았지. 그래, 그건 대리석이었네. 딱딱한 돌이었네! 물방울이 떨어져 크립처럼 부드러워졌네</p> <p>그리고 그대여, 온유하고 우아한 여인이여, 온유하고 우아한 여인이여; 그대는 나의 괴로움에도 웃을뿐이구나, 이 괴로운 원망에도!</p>

『일반 음악 신문』 (*Allgemeine Musikalische Zeitung*)³¹⁾의 평론가는 반복되는 ‘-e’와 각 연의 마지막 행의 역행(zahm sie, Rahm sie, Gram hie)이 약간 난해하다고 비판했다.³²⁾ 그래서 지휘자 레비(Hermann Levi, 1839-1900)³³⁾는 브람스를 대신하여 하이제(Paul Johann Ludwig von Heyse, 1830-1914)³⁴⁾에게 수정을 부탁했다.³⁵⁾ 브람스는 하이제의 수정이 전적으로

31) 독일의 음악 정기 간행물이다. 1798년에서 1848년 사이에 발행된 주간 잡지와 1866년에서 1882년까지 발행된 두 시리즈로 출간되었다.

32) Natasha Loges, *Brahms and His Poets*, 253.

33) 레비는 브람스의 친구이자 독일의 지휘자이다. 그는 칼스루에와 뮌헨에서 지휘를 했고 바그너의 오페라 《파르지팔》(*Parsifal*)이 초연될 때 지휘를 맡았다.

34) 하이제는 독일의 소설가이자 극작가이다. 그는 사실주의의 유행 속에서 고전적인 형식미를 중시했으며 독일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가 된 인물이다.

35) Max Kalbeck, *Johannes Brahms. Eine Biographie in vier Bänden*, Severus Verlag (2013), 97-98.

마음에 들었으며 변경된 시가 <냉담한 여인> 으로 작곡되었다.³⁶⁾

수정된 시는 총 3연 12행으로 구성되어있다. 시의 각운은 1연의 1행은 -in, 2행은 -e로 다르고 3, 4행은 -en으로 같다. 2연의 1, 2행은 -e로 3, 4행은 -en로 같고 3연의 1, 2행은 -e로 3, 4행은 -en으로 같다. 1연의 1행을 제외하고 모든 연의 1, 2행과 3, 4행이 쌍운으로 이루어져있다.

시의 내용은 여인의 쌀쌀맞은 태도 때문에 괴로운 화자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1연과 2연에서는 그녀를 암호랑이와 대리석에 비유하여 쌀쌀맞고 차가운 여인의 성격을 묘사하였고 그런 그녀를 눈물로 길들였을 화자의 쓸쓸함이 나타난다. 3연에서는 아름답고 우아하지만 매정한 여인 때문에 고통스러운 화자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하이제가 수정한 시의 원문과 해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문	해석
Ich sahe eine Tig'rin Im dunkeln Haine, Und doch mit meinen Tränen Konnt' ich sie zähmen.	나는 한 마리의 암호랑이를 보았네 어두운 숲속에서, 그러나 나는 내 눈물로 그녀를 길들일 수 있었지.
Sah auch die harten Steine, Ja Marmelsteine, Erweicht vom Fall der Tropfen Gestalt annehmen.	나는 딱딱한 돌도 보았네. 그래, 그건 대리석이었네.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부드러워져 형태가 드러나게 되었지.
Und du, so eine zarte, Holdsel'ge Kleine, Du lachst zu meinem Seufzen Und bitterm Grämen.	그리고 그대여, 온유하고 우아한 여인이여, 그대는 나의 한숨과 쓰라린 괴로움에도 웃을뿐이구나.

36) 초판은 코피쉬의 번역이 사용되었고 이후 출판된 악보에는 하이제가 수정한 시가 사용되었다.

2) 곡의 구성 및 분석

브람스는 하이제가 수정한 3연 12행의 시를 A-A'-B-Coda의 형식으로 풀어내었다. 이 곡의 빠르기말은 곡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아하게(*Grazioso*)'로 표시되었다. 여기서 '우아하게'는 냉담하지만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묘사한다. 박자는 2/4박자와 3/4박자가 자주 변화한다. 조성은 A장조로 시작하여 두 번의 조성 변화를 보이다가 같은 으뜸음조인 a단조로 마무리한다. 그녀를 비유하여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A장조의 조성을 보이고 그녀를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부분에서는 화자의 괴로운 마음을 대변해 a단조로 바뀐다. <냉담한 여인>의 시의 내용과 곡의 구성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3곡 <냉담한 여인> 시의 내용과 곡의 구성

시		곡				
연	내용	형식	구분	마디	박자	조성
1	그녀를 암호랑이에 비유	A	전주	1-4	2/4	A장조
			a	5-10		
			b	11-18		
2	그녀를 대리석에 비유	A'	전주	1-4	2/4	A장조
			a'	5-10		
			b'	11-18		
3	차가운 여인으로 인해 괴로운 화자의 마음	B	간주	19-22	2/4	A장조
			c	23-26	3/4	a단조
					2/4	
			d	27-30	3/4	B ^b 장조
			Coda	31-35	2/4	
후주	35-39	a단조				

(1) A, A'부분

A, A'부분은 마디1부터 18마디까지이며 전주(마디1-4), a(마디5-10), b(마디11-18)로 구성되며 쌀쌀맞은 그녀를 암호랑이와 대리석에 비유해 묘사하는 부분이다. A부분과 A'부분은 도돌이표를 사용해 형식은 동일하게 진행된다. *p*로 시작하는 전주는 4마디의 못갓춘 마디이며 '우아하게'의 분위기를 반주가 조성하고 있다. 반주부의 오른손 상성부는 6도 아래로 도약을 보이고 오른손의 하성부와 왼손은 순차 하행하고 있다. 마디2-3 오른손은 부점 리듬이 추가되었다. 마디3 첫 박은 단조적 차용 화음이고 두 번째 박자에 V7 이후 다시 A장조 으뜸화음의 아르페지오가 시작된다 [악보 3-1].

[악보 3-1] 〈냉담한 여인〉 마디1-4a

성악선율은 반주부의 뻑뻑한 셋잇단음표와는 달리 16분음표, 8분음표, 4분음표를 사용해 보다 긴 라인을 가진다. 마디6의 '암호랑이(Tigrin)'와 '돌(Steine)', 마디7의 '어두운(dunklen)'과 '대리석(Marmelsteine)'과 같은 무거운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 단조적 차용 화음이 쓰였다. 마디9 성악 선율에는 '어두운'을 마디7의 'F'와 'G'를 부점으로 늘여서 한 번 더 반복하며 이 역시 단

조에서 가져온 화성이다. 마디10 다시 A장조로 돌아오며 짧은 간주와 함께 (b)로 향한다 [악보3-2] .

[악보 3-2] <냉담한 여인> 마디4b-11a

4

Ich sa - he ei - ne Tig - - rin im dunk - len
Sah auch die har - ten Stei - - ne, ja Mar - mel -

R.H.

A : I iv(차용화음) I6 iv(차용화음)

8

Hai - - ne, im dunk - len - Hai - - ne, und
stei - - ne, die har - ten - Stei - - ne, er -

iv(차용화음)

마디12 성악 선율에는 반음계로 하행하는 라인이 보인다. 반주부는 셋잇단 음표를 오른손에서 연주했던 a와 달리 양손으로 나누어서 셋잇단음표를 연주하며 가장 윗 성부는 성악 선율의 멜로디 라인이 드러난다. 마디15에는 화성적 반주가 짧게 등장한다. 1절의 ‘길들이다(zähmen)’와 2절의 ‘드러내다 (annehmen)’를 더 길게 반복한다 [악보 3-3] .

[악보 3-3] <냉담한 여인> 마디11b-18

11 반음계 진행→

und doch mit mei - nen
er weich vom Fall - der

13

Trä - - nen
Trop - - fen,
konnt ich sie zäh - - men
Ge - stalt an - neh - - men,

16

konnt ich sie zäh - - - men.
Ge - stalt an - neh - - - men.

(2) B부분

B부분은 마디19부터 30까지이며 간주(마디19-22), c(마디23-26), d(마디27-30), Coda(마디31-35), 후주(마디35-39)로 이루어져있다. 차가운 여인으로 인해 괴로운 화자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간주는 전주와 동일하고 마지막 부분 마디22만 변화가 있는데 테크레센도와 디미누엔도를 사용해 작아지며 이는 그녀 때문에 지친 화자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양손에 셋잇단 음표를 번갈아가며 연주하고 왼손의 베이스에는 A음이 페달 포인트로 나타난다.

성악 선율이 시작되면서 박자는 3/4로 바뀌고 a단조의 화성이 들리기 시작한다. 지시어는 ‘더 여리고 더 달콤하게 (*piu p e piu dolce*)’가 사용되어 우아하고 온유한 여인을 묘사한다. 마디24 다시 2/4박자로 돌아온다. 마디23-24의 성악 선율이 B부분의 주요 음형인데 악구마다 반복이 된다. 마디25-26 ‘달콤하게 (*dolce*)’의 지시어가 다시 한 번 강조된다. 반주부 오른손에 성악 선율보다 3도 높은 음이 종소리처럼 들려와 조화를 이룬다. 마디27 3/4박자로 다시 바뀌고 조성은 B^b장조로 바뀌면서 화자의 탄식이 더 깊어지고 애절해졌다. 크레센도를 하면서 다시 박자가 2/4로 변화하고 E^b장조로 전조된다. 마디27-30 성악 선율에 주요 음형이 또 한 번 반복된다 [악보 3-4].

[악보 3-4] <냉담한 여인> 마디22b-31

22
Und du, so ei - ne zar - - te

dimin. *piu p e piu dolce*

AM : 1 페달포인트 D : V7

25
hold - sel - ge Klei - - ne, du lachst zu mei - nem

dolce

V7 I V7 Bb: VM7

반음계

28
Seuf - - zen und bit - - tern Grä - - men,

Eb : VM7 V vii° V7/V VM7 V

Coda는 마디31부터 35까지로 다시 a단조로 돌아왔다. 성악선율에 ‘자유로운 빠르기(ad libitum)’의 지시어가 추가됐고 반주부에는 ‘노래를 따라서(colla voce)’의 지시어가 추가됐다. 두 파트 모두 움직임이 줄어들어 화자의

상심한 마음을 대변한다 [악보 3-5].

[악보 3-5] 〈냉담한 여인〉 마디31b-35a

31 *ad libitum*

du lachst zu meinem bittern Grämen.

colla voce *p*

V_{M7} a vii^o_5 i_6 iv V_7 i

*p*로 진행되는 후주는 계속된 테크레센도의 사용으로 점점 분위기가 가라앉고 우울한 이미지가 그려진다. 오른손은 6도 아래로 도약하고 왼손은 A음부터 순차 하행을 하고 있는 형식은 전주와 같지만, A장조로 진행되던 전주와 달리 후주는 a단조로 마무리하며 화자의 한탄을 묘사한다 [악보 3-6].

[악보 3-6] 〈냉담한 여인〉 마디35-39

35

men.

6도 6도 순차하행→

p

순차하행→

4. 제4곡 〈오 오라, 사랑스러운 여름밤아〉 (*O komme, holde Sommernacht*)

1) 시의 구성 및 내용

〈오 오라, 사랑스러운 여름밤아〉는 그로에의 시이다. 이 시는 그로에의 시집 『시와 여행』 (*Reime und Reisen*)에 수록된 시이다. 이 시집은 주로 사랑, 장미, 달, 그의 이국적인 여행이 주제인 전형적인 서정적 화풍 시집이며 1861년 만하임에서 출판되었다. 시집에 기록된 원시의 제목은 〈여름밤〉 (*Sommernacht*)이다.³⁷⁾

시는 총 3연 12행이며 각 연이 4행으로 구성되어있다. 시의 각운은 각 연의 1, 3행과 2, 4행이 같은 교차운이다.

시의 내용은 떠나갔던 여인이 다시 돌아와 화자와 재회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으며 배경은 고요하고 아름다운 여름밤이다. 꽃봉오리, 제비꽃, 장미의 시어로 보아 에로틱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2연은 그녀의 품이 열리는 모습을 제비꽃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고 3연은 환희에 찬 화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시의 원문과 해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7) Natasha Loges, *Brahms and His Poets*, 147.

원문	해석
<p>O komme, holde Sommernacht, Verschwiegen; Dich hat die Liebe recht gemacht Zum Siegen!</p>	<p>오 오라, 사랑스러운 여름밤아, 비밀스럽게; 사랑은 바로 당신을 이끌었구나 승리로!</p>
<p>Da brechen manche Knospen los, Verstohlen, Da öffnen ihren süßen Schoß Violen;</p>	<p>그때 많은 꽃봉오리들이 떨어진다, 은밀하게. 그 달콤한 품이 열린다 제비꽃이;</p>
<p>Da neigt ihr Haupt im Dämmerchein Die Rose, Da wird mein Liebchen auch noch mein, Das lose!</p>	<p>이제 그 희미한 빛에 머리를 까딱이는 것은 장미로구나, 그리고 그때 내 연인은 나의 것이 되었는데, 잃어버렸던 그 여인이!</p>

2) 곡의 구성 및 분석

〈오 오라, 사랑스러운 여름밤아〉는 A-A'-B-A''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 곡의 빠르기말은 ‘생기있고 비밀스럽게(*Lebhaft und heimlich*)’라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시어가 쓰였고 ‘비밀스럽게’는 밤중에 화자와 여인이 사랑을 속삭이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썸머림은 *p*와 *pp*만 사용되는데 이는 ‘비밀스러운’ 이미지를 그려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박자는 4/4이며 조성은 F#장조로 시작하여 잦은 조성의 변화를 보이다가 다시 F#장조로 돌아와 곡을 마무리한다. 브람스는 행이 짧은 2, 4, 6, 8, 10, 12행을 의도적으로 긴 음표를 사용해 강조했다. 〈오 오라, 사랑스러운 여름밤아〉의 시의 내용과 곡의 구성을 정리하면 [표 5] 와 같다.

[표 5] 4곡 〈오 오라, 사랑스러운 여름밤아〉 시의 내용과 곡의 구성

시		곡				
연	내용	형식	구분	마디	박자	조성
1	들떠있는 모습의 화자	A	a	1-5	4/4	F#장조→C#장조→ F#장조
			b	6-9		
		A'	a'	10-13		F#장조→C#장조→ F#장조
			b'	14-17		
2	그녀의 품이 열림	B	c	18-21		f#단조→D장조→B장조
			d	22-25		
3	내 품으로 돌아온 여인에 대한 환희	A''	a''	26-29		
			b''	30-38		

(1) A부분

A부분은 마디1부터 9까지이며 a(마디1-5), b(마디6-9)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녀와 같이 있을 생각에 들떠있는 화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마디2 성악선율의 점4분음표, 8분음표, 4분음표(♩ ♪ ♩ ♩)리듬은 이 곡의 주된 모티브이며 악구마다 반복해서 연주된다. (a)와 (b)의 선율은 동형진행 하고 있다. ‘매우 여리게(*molto p*)’의 지시어와 아래로 하행하는 셋잇단음표 리듬은 비밀스러운 분위기를 예시한다. 성악선율이 시작되면서 반주부의 오른손은 ‘가볍게’의 지시어로 더 밝은 셋잇단음표 연주를 요구하고 왼손은 호른 소리처럼 보인다. 이는 ‘소리를 낮추어(*sotto voce*)’로 표기되어 있고 성악선율의 한 옥타브 아래에서 성악선율과 동일한 음을 연주한다. 마디6-7에서는 C#장조의 조성이 보이고 마디8-9 반주부의 왼손에서는 주된 모티브가 짧게 등장한다. 마디9 다시 F#장조로 돌아온다 [악보 4-1].

[악보 4-1] <오 오라, 사랑스러운 여름밤아> 마디1-9a

Lebhaft und heimlich. 모티브

0 kom - me, hol - de Som - mer nacht, ver - schwie - - -

leggiero

molto p

sotto voce
↑ 호른소리 묘사

5

gen; dich hat die Lie - be recht ge macht zum Sie - - - gen! 0

C# : V⁶ F# : V⁶

(2) A'부분

A'부분은 마디10부터 17까지이고 a'(마디10-13), b'(마디15-17)로 구성된다. 성악선율의 A부분과 A'부분은 1연의 시를 동일하게 반복한다. 반주부만 변화가 있는데 셋잇단음표가 반주부 오른손에 나왔던 A부분과 달리 A'부분은 왼손에서 연주되고 호른소리는 오른손에서 들린다. 이는 '중간 음성으로 (*mezza voce*)'로 표시된다. 이 반주의 변화는 동일한 반복 안에서 다양한 효과를 내었다 [악보 4-2].

[악보 4-2] 〈오 오라, 사랑스러운 여름밤아〉 마디9b-17a

9
gen! O kom - me, hol - de Som - mer nacht, ver -
mezza voce
leggiero
F# : V⁶
I

12
schwie - - gen; dich hat die Lie - be
C# : V⁶

15
recht ge macht zum Sie - - - gen! Da

(3) B부분

B부분은 마디18부터 25까지이고 c(마디18-21), d(마디22-25)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녀의 품이 열리는 모습을 그려내고있다. 마디18 조성은 f# 단조로 바뀌고 이는 마디20의 ‘은밀하게(verstohlen)’의 분위기를 묘사한다. 성악선율에 주요 모티브가 나오고 마디마다 음이 상승되어(B-C#-D) 점점 고조되는 화자의 마음과 상황을 표현한다. 반주부의 셋잇단음표는 다시 오른손으로 돌아가고 단음이 아닌 3도 화성으로 진행된다. 왼손은 주요 모티브를 옥타브로 연주하여 더 두꺼운 호른 소리를 낸다. 마디20 성악선율의 ‘은밀하게’라는 단어에는 장식적인 음형으로 진행되고 반주부의 오른손은 앞보다 한음이 더 추가되어 3화음을 이룬다.

마디22 D장조로 조성이 변화하고 닫혔던 그녀의 마음이 열리는 이미지를 담아낸다. 마디23 ‘달콤한(süßen)’이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단어이지만 불협화음에 하행하는 라인으로 표현되고 ‘품(Schoß)’은 증3화음이 사용되었다. 마디24 조성은 B장조로 바뀌고 ‘제비꽃(Violen)’의 성악선율은 이 곡에서 가장 긴 6박자까지 늘려서 표현된다. 반주부의 왼손은 2분음표를 사용해 더 확장된 느낌을 준다. 그러나 셈여림은 끝까지 *p*를 유지하는데 이는 고조되는 분위기 속에서도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분위기를 지속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조성은 F#장조로 돌아가는 듯 보이지만 마디25 ‘제비꽃’이라는 단어가 완성되면서 B장조에 도달한다 [악보 4-3] .

[악보4-3] 〈오 오라, 사랑스러운 여름밤아〉 마디17b-25a

(4) A''부분

A''부분은 마디26부터 38까지이고 a''(마디26-29), b''(마디30-38)로 구성된다.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온 여인에 대한 화자의 환희를 담고있다. A부분과 형식은 유사하지만 조성은 분위기가 더 고조된 B장조에서 연주된다. 셋여림은 B부분보다 더 작아진 *pp*로 진행된다. 마디28 성악선율의 '장미(die Rose)'는 5도 도약을 했던 A부분과 달리 다소 약해진 3도 도약으로 부드러운 느낌을 주지만 반주부는 A부분과 동일하게 5도 도약을 하여 상승된 느낌을 준다. 마디29 '그때(da)'는 앞부분과 다르게 한 박자 당겨진 셋째 박에서 연주되는데 이는 환희에 찬 화자의 호흡을 표현한다. 마디30 다시 F#장조로 돌아온다. 마디33 성악선율은 '잃어버렸던 그 여인이!(das lose!)'를 받

복하며 *p*로 연주된다. 반주부에는 주요 선율이 오른손에서 다시 들리며 테크레센도를 사용해 점점 작아진다. 왼손의 셋잇단음표는 하행해서 마디34 낮은 옥타브로 연결된다. 성악선율은 6박자까지 길어지고 8도 아래로 도약해 마무리한다 [악보 4-4].

[악보 4-4] 〈오 오라, 사랑스러운 여름밤아〉 마디25b-35a

25 len, da neigt ihr Haupt im Däm-mer-schein die Ro - - -

29 se, da wird mein Lieb-chen auch noch mein, das

32 lo - - - se, das lo - - - se!

V - 7 B : I

C# : IV₄⁶ vii₆

F# : I₄⁶ V₃⁴ V₇/IV IV₆

3도

4도

8도

pp

p

p

sotto voce

마디35 후주가 시작되고 세 마디동안 점점 작아지고 느려진다. 셋잇단음표는 다시 왼손에서 움직이며 오른손은 주요 모티브의 일부(↓ ♪)가 꾸준히 상승하다가 F#장조의 으뜸화음이 *pp*로 잔잔하게 마무리된다 [악보 4-5].

[악보 4-5] 〈오 오라, 사랑스러운 여름밤아〉 마디33-36

35

set

ritard.

pp

IV₆

5. 제5곡 〈우울한 마음〉 (*Schwermut*)

1) 시의 구성 및 내용

〈우울한 마음〉은 칸디두스의 시이다. 이 시는 칸디두스가 죽기 2년 전인 1869년에 출판된 『복합 시집』에 수록된 시이다. 원시는 6행과 7행이 구분되지 않고 6행으로 되어있지만,³⁸⁾ 브람스는 이 시를 7행으로 나누어 작곡했다.

시는 총 7행으로 구성되어있다. 각운은 1, 3행이 -z로 2, 7행이 -e로 4, 5행이 -tt로 같고 6행은 -en으로 끝난다.

시의 내용은 고통스러운 삶에 지쳐 쉴 곳을 찾는 화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제4곡 〈오 오라, 사랑스러운 여름밤아〉의 환희에 찬 이미지와는 극히 대조되며 삭막한 상황 속에 의지할 데 없이 외로운 화자의 마음이 표현된 시이다. 시의 원문과 해석을 보면 다음과 같다.

원문	해석
Mir ist so weh ums Herz,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
Mir ist, als ob ich weinen möchte	나는 울고만 싶네
Vor Schmerz!	이 고통 앞에서!
Gedankensatt	생각에 잠기고
Und lebensmatt	삶에 지쳐서
Möcht' ich das Haupt hinlegen	나는 머리를 누이고 싶네
in die Nacht der Nächte!	밤 중의 밤 속에!

38) Karl August Candidus, "Vermischte Gedichte." (1869), 16.

2) 곡의 구성 및 분석

브람스는 짧은 7행의 시를 A-B형식으로 담아내었다. 곡의 빠르기말은 ‘매우 느리게(Sehr langsam)’이며 이는 지쳐있는 화자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박자는 A부분에서는 4/4박자이고 B부분은 4/2박자로 진행된다. 조성은 e^b 단조로 시작하고 조성이 자주 변화하다가 E^b 장조로 마무리한다. B부분에서는 조성이 3번이나 바뀌는데 이는 안식을 찾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선율적인 부분은 앞의 곡들과 달리 도약이 심하지 않고 주로 순차 상행 하거나 순차 하행을 하는데 이는 고통스러운 삶에 지쳐 무기력한 화자의 상태를 묘사한다. <우울한 마음>의 시의 내용과 곡의 구성을 정리하면 [표 6] 과 같다.

[표 6] 5곡 <우울한 마음> 시의 내용과 곡의 구성

시		곡				
행	내용	형식	구분	마디	박자	조성
1-5	지친 삶과 고통 속에 피로워하는 화자	A	전주	1-5	4/4	e ^b 단조
			a	6-8		
			b	9-14a		
			간주	14b-17		b단조
			c	18-21a		
			간주	21b-23		
6-7	밤중의 안식을 찾는 화자	B	d	24-25	4/2	g단조→E ^b 장조→e ^b 단조
			e	26-30a		
			후주	30b-32		E ^b 장조

(1) A부분

A부분은 마디1부터 23까지이며 전주(마디1-5), a(마디6-8), b(마디9-14), c(마디15-21), 간주(마디21-23)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친 삶과 심적인 고통 속에 괴로워하는 화자의 모습이 담겨있다. 전주는 *p*로 시작하고 ‘소리를 낮추어(*sotto voce*)’를 사용해 더 고요한 느낌을 주며 장송곡 분위기가 느껴진다. 마디1-5 2분음표는 뒤에 나올 성악선율을 미리 제시한다. 마디1-2 2분음표 옥타브로 연주되는 B^b 음은 페달 포인트이며 동시에 어두운 상황을 암시한다. 그 아래 점4분음표, 8분음표, 4분음표, 2분음표로 구성된 주요 리듬(♩ ♩ ♩ ♩)이 나오는데 이는 A부분 전체에 등장한다. 마디4-5 점점 작아지며 불완전 정격종지(I.A.C)를 한다 [악보 5-1].

[악보 5-1] 〈우울한 마음〉 마디1-5b

Sehr langsam.

Mir

sotto voce 성악선율 제시→

p

페달 포인트

(I.A.C)

마디6의 성악선율은 전주보다 한 옥타브 높은 음에서 시작한다. 마디9부터 성악선율은 마디13-14의 ‘이 고통 앞에서!(vor Schmerz!)’를 향해 크레센도와 함께 순차적으로 상행하며 반주부는 성악선율과 반대로 하행한다. 이 반진행은 점점 더 심화되는 화자의 괴로움을 나타낸다. 마디13에서는 부속7화

음이 사용되어 화자의 고통스러움을 표현하고 마디14의 5도 도약과 *f*와 *p*의 대조는 화자가 탄식하는 듯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성악선율이 끝나는 동시에 짧은 간주가 시작되고 전주와 같은 선율로 진행된다. 내성에는 3도 화성이 추가되었고 왼손은 옥타브로 연주되어 더 무거워진 화자의 마음을 표현한다. 디미누엔도와 테크레센도를 사용해 볼륨이 점점 더 작아지며 힘없는 화자의 모습이 그려진다 [악보 5-2].

[악보 5-2] 〈우울한 마음〉 마디5b-17a

마디18의 성악선율은 앞의 선율보다 낮은 음으로 연주되고 무반주로 진행된다. 이는 작은 레치타티보의 성격을 띠며 화자가 본인의 상황을 작게 읊조리는 느낌을 준다. 마디17b부터 20a까지 같은 음으로 6번 반복되는데 이

명동음으로 표기되며 마디18 'ken'의 음정이 G^b에서 F[#]으로 바뀐다. 반주부가 *pp*로 작게 나오면서 조성은 b단조로 바뀐다. 마디20은 3도 도약으로 하행하며 마디21에서 조성은 더 낮은 g단조로 전조되고 화자의 우울감이 더 깊어진 듯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마디22-23 네 개의 2분음표들이 점점 작아지며 B부분에 나올 2분음표 선율을 암시한다 [악보 5-3].

[악보 5-3] 〈우울한 마음〉 마디17b-23a

Ge - dan - ken - satt und le - bens - matt möcht

pp *dimin.*

b : i g : i

(2) B부분

B부분은 마디24부터 32까지이며 d(24-25), e(26-30a), 후주(30b-32)로 구성되어있고 지쳐있는 화자가 밤중에 안식을 찾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박자는 4/2로 바뀐다. B부분의 성악선율은 거의 2분음표로 이루어져 있으며 A부분에 비해 더 늘어난 느낌을 준다. 이 느린 2분음표 선율은 순차 하행하거나 상행하여 힘없이 끌려다니는 듯한 화자의 모습을 나타낸다. 마디24-25의 성악선율은 음이 맞물려서 하행(B^b-A-A-G-G)하고, '눕다(hinlegen)'에서 음을 길게 늘이면서 단계적으로 하행한다. 반주부의 상행하는 왼손과 오른손의 3화음은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듯 삶에 지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쇠약한 화자의 상황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인다. 반주부 오른손의 가장 윗성

부는 성악선율보다 3도 높은 음으로 연주되며 마디24-25 화성은 각각 g단 조와 E^b장조의 V7과 i(I)도로 진행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악보 5-4] .

[악보 5-4] 〈우울한 마음〉 마디23b-25a

23 순차하행 →
 möcht ich das Haupt hin- le - - - gen in -
 V7 i Eb : V7 I

마디26-27 e^b 단조로 조성이 바뀌고 성악선율은 단3도와 완전4도의 순서로 상행(E^b-G^b-C^b)한다. 마디26의 ‘밤(Nacht)’과 마디27의 ‘밤(Nächte)’에는 부속7화음과 근음이 플랫폼된 7도 화성이 사용되어 어두운 밤을 묘사한다. 반주부는 마디27까지 크레센도 했다가 다시 작아지며 다른 마디와 다르게 첫박에 오른손 화음이 연주되고 오른손 내성의 G^b은 F로 해결된다.

마디28은 ‘밤중의 밤속에!(in die Nacht der Nächte!)’를 반복하며 성악선율은 순차상행(B^b-C^b-D^b-E^b)을 한다. 반주부의 오른손의 윗성부는 성악선율과 동일한 음을 연주하고 아래성부들은 하행하며 반진행한다. 셈여림은 마디26-27과 동일하게 ‘밤(Nächte)’까지 크레센도 한 후에 작아진다. 마디29에서는 원조의 같은 으뜸음조인 E^b장조로 조성이 다시 바뀐다. 성악선율은 완전4도, 단6도로 하행하여 저음에 이르고 완전히 지친 화자의 모습을 표현한다. 반주부의 오른손에는 비화성음과 해결이 반복되고 이 비화성음들은 장조 안에서 단조의 느낌을 주어 제목의 우울한 마음을 암시한다 [악보 5-5

].

[악보 5-5] 〈우울한 마음〉 마디25b-30a

마디30 성악선율이 끝남과 동시에 후주가 시작된다. 오른손의 내성에는 반음계의 선율(D^b-C-C^b-B^b)이 나타나며, 왼손 아르페지오는 훨씬 더 낮은 곳부터 상행하여 화자의 우울하고 어두운 마음을 표현한다. 양손에는 E^b음이 페달포인트로 나타나고 E^b장조의 으뜸화음으로 곡이 끝난다 [악보 5-6] .

[악보 5-6] 〈우울한 마음〉 마디30-32

6. 제6곡 〈골목에서〉 (*In der Gasse*)

1) 시의 구성 및 내용

〈골목에서〉는 헤벨의 시이다. 이 시는 1842년 출판된 그의 『시집』 (*Gedichte*)의 《복합 시집》 (*Vermischte Gedichte*) 부분에 실려있고, 「젊은이의 사랑과 삶」 (*Ein frühes Liebesleben*)이라는 연작시에 속해있는 곡이다. 이 연작시는 총 11번까지 있으며 각각 다른 시기에 쓰여진 이 시들은 화자의 애인이 일찍 죽는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다.³⁹⁾ 〈골목에서〉는 1836년 쓰여졌으며 6번째 시이다. 원시의 제목은 〈유령〉 (*Spuk*)이다.⁴⁰⁾

시는 총 2연 8행이며 각 행이 4행으로 구성되어있다. 시의 각운은 1연의 1, 3행이 -e, -er로, 2, 4행이 -t, -d로 비슷하다. 2연의 1, 3행은 각각 -en, -sch로 다르고 2, 4행은 -chts로 각운이 같다. 시의 원문과 해석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골목에서〉는 슈베르트(Franz Peter Schubert, 1797-1828)의 가곡 《백조의 노래》 (*Schwanengesang*) 중 〈도플갱어〉 (*Der Doppelgänger*)와 내용이 비슷하다. 시의 내용은 그녀가 살던 곳을 바라보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1연의 화자는 골목을 내려다보던 중 그녀가 살던 집의 창가를 바라보고 그녀가 없기 때문에 적막함을 느낀다. 그에 반해 달빛은 밝고 아름답게 반짝여서 화자를 더욱 쓸쓸하게 만든다. 2연의 반짝이는 것이 많은 것은 그녀와의 많은 추억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추억들이 떠올라 화자는 애통해한다.

39) Natasha Loges, *Brahms and His Poets*, 181.

40) Christian Friedrich Hebbel, *Gedichte-Ausgabe letzter hand* (North Charleston: CreateSpace Independent Publishing Platform, 2013), 61.

원문	해석
<p>Ich blicke hinab in die Gasse, Dort drüben hat sie gewohnt; Das öde, verlassene Fenster, Wie hell bescheint's der Mond.</p> <p>Es gibt so viel zu beleuchten; O holde Strahlen des Lichts, Was webt ihr denn gespenstisch Um jene Stätte des Nichts!</p>	<p>나는 좁은 골목 아래를 바라보았네, 저기 저편에서 그녀가 살았었지; 황량하고, 피폐한 창가에 달은 어찌나 밝게 반짝이는지.</p> <p>저곳은 반짝이는 것이 아주 많구나; 오 우아하고 반짝이는 빛이여, 너희는 왜 유령처럼 나타나 아무것도 아닌 저곳을 수놓는 게냐!</p>

2) 곡의 구성 및 분석

브람스는 2연 8행으로 이루어진 시를 A-B형식으로 담아내었다. 곡의 빠르기말은 ‘걷는 빠르기로 (*Gehend*)’가 쓰였는데 이는 화자가 골목을 바라보며 걷고 있는 상황과 잘 어울린다. 템포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걷는 빠르기로’로 보아 ‘안단테(*Andante*)’가 적당하다고 여겨진다. 박자는 3/4이며 조성은 d단조이며 A부분에서 F장조로 바뀐 후 B부분에서 다시 d단조로 전조된 후 곡을 마무리한다. <골목에서>의 시의 내용과 곡의 구성을 정리하면 [표 7] 과 같다.

[표 7] 제6곡 <골목에서> 시의 내용과 곡의 구성

시		곡				
연	내용	형식	구분	마디	박자	조성
1	그녀가 살던 곳을 바라보는 모습	A	전주	1-6a	3/4	d단조→F장조→ d단조
			a	6b-16a		
			b	16b-22a		
			c	22b-35a		
2	그녀와의 추억을 회상하는 모습	B	d	35b-44a		d단조→B ^b 장조→ d단조
			e	44b-60a		
			후주	60b-65		

(1) A부분

A부분은 마디1부터 35까지이며 전주(마디1-6a), a(마디6b-16a), b(마디16b-22a), c(마디22b-35a)로 이루어져 있다. A부분은 1연의 내용으로 그녀가 살던 곳을 내려다보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난다. 전주는 못갓춘마디이며 4도 도약(A-D)으로 시작한다. 옥타브의 선율은 점차 하행하고 있지만 순차적으로 하행하지 않고 상행과 하행을 반복하며 하행한다. 이는 화자의 시선이 골목 이곳저곳으로 움직이는 것을 암시하고 불안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마디3-6 오른손의 윗성부는 순차하행(F-E-D-C[#])하고 있다. 성악선율을 미리 제시하고 있으며 2분음표로 이루어진 3화음이 점점 작아지며 d단조의 으뜸화음의 제2전위와 V의 코드로 마무리한다.

마디6b 성악선율은 피아노와 유니즌을 이루고 마디10b 성악선율과 반주부는 나뉘어져 성악선율이 한 옥타브 위에서 연주된다. 반주부 오른손의 윗성부는 마디9-16까지 순차하행(F-E-D-C-B^b-A-G-F-E)하고, 마디13부터 전주의 동기로 작은 간주가 시작되고 점점 작아진다 [악보 6-1].

[악보 6-1] 〈골목에서〉 마디1-16a

Gehend.

성악선율 제시

Ich bil - eke hin -

d : i

i : V

V

8

ab in die Gas - - se, dort drü - ben hat sie ge - wohnt; das

마디16b-20 성악선율은 A음을 중심으로 맴도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는 골목을 이리저리 보던 화자의 시선이 창가에 머물렀음을 암시한다. 반주부는 *pp*이고 음이 많던 앞부분과 달리 으뜸화음의 2전위와 딸림화음의 코드로만 진행된다. 오른손은 3도 화성이고 왼손은 A음의 옥타브이며 뚜렷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황량하고 피폐한 창가(Das öde, verlassene Fenster)’의 이미지를 반영하는 듯하다.

마디22b ‘달은 어찌나 밝게 반짝이는지(Wie hell bescheint’s der Mond)’를 표현하기 위해 F장조로 조성이 바뀌었다. 이 행은 한 번 더 반복되어 마디 27-30 ‘밝다(hell)’과 ‘빛(bescheint’s)’에서 5박자까지 늘어난다. 반주부의 오른손은 4분음표와 2분음표가 하행하고 왼손은 3도, 4도, 5도 화성과 옥타브가 사용되어 여전히 움직임이 없다. 그리고 2행 끝에 나온 작은 간주가 다시 등장한다 [악보 6-2].

[악보 6-2] <골목에서> 마디16b-35a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a piano and voice. It consists of two systems of music. The first system starts at measure 16 and ends at measure 25. The second system starts at measure 26 and ends at measure 35. The score includes vocal lines with German lyrics and piano accompaniment. The piano part features a *pp* dynamic in the first system and a *poco f* dynamic in the second system. Chord symbols are provided for the piano accompaniment in the second system: I_6^+ , IV , $d: V$, $ii^{9/2}/iv$, iv , $F: bIV_4^6$, V_5^6 , and I .

(2) B부분

B부분은 마디35b부터 65까지이며 d(마디35b-45a), e(마디45b-60a), 후주(60b-65)로 구성되어 있다. B부분은 2연의 내용으로 유령처럼 흔들리는 빛을 보고 탄식하는 화자의 모습이 그려진다. 마디35b-37a 조성은 d단조로 돌아오고 전주의 모티브가 다시 시작된다. ‘조금 세게(*poco f*)’와 ‘조금 생기있게(*poco animato*)’의 지시어로 분위기가 고조됨을 암시한다. 마디37b 성악선 율에도 ‘조금 생기있게’가 지시되어 있고 조성은 B^b장조로 보인다. E음부터 시작하여 마디39 E^b까지 급격하게 상행 도약하고 마디40 6도 하행(D-F)한다. 마디41b-44 성악선 율은 마디37b-40과 같은 음형이고 G^b까지 상승했다가 반음 아래인 F로 하행한다. 반주부는 점2분음표의 3도 화성이 꾸준히 나오고 그 아래에는 전주의 부점 리듬이(♩ ♪ ♩) 계속 이어지고 있다. 화성은 메이저와 마이너의 화성이 다채롭게 번갈아가며 등장하고 이는 ‘저곳은 반짝이는 것이 아주 많구나(Es gibt so viel zu beleuchten)’의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악보 6-3].

[악보 6-3] 〈골목에서〉 마디35b-43

35

poco animato.

Es gibt so viel zu be - leuch - ten, o hol - de Strah - len des Lichts,

poco f *poco animato.* *f*

d : i B^b : I⁶

마디44b-45 조성은 d단조로 돌아오고 성악선율과 반주부에 ‘점점 격렬하게 (*sempre piu agitato*)’의 지시어 사용으로 감정이 격해진 화자의 모습을 표현한다. 마디46-49a 성악선율은 2분음표와 4분음표를 사용해 하행하고 있으며 마디49b-52 4도 도약(G-C[#])한 뒤 순차상행(C[#]-D-E-F)한다. 이 상행하는 선율은 화자가 절규하는 듯한 효과를 준다. 마디44 반주부의 셈여림은 *f*이며 오른손에는 전주의 리듬이 두 마디에 걸쳐 나타난다. 그 이후에는 부점 리듬이 사라지고 4분음표로만 연주된다. 왼손에는 끊임없이 8분음표가 등장하며 화성도 계속 바뀐다. 이는 화자의 어지러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으며 ‘빛(Lichts)’에 동요되는 화자의 상태를 나타낸다. 왼손의 베이스는 순차하행(F-E-D-D^b-C-B-A-G[#])을 한다. 마디48-52에서 반주부의 오른손은 4분음표가 하나 생략되고 왼손은 상승하는 아르페지오로 진행된다. ‘유령처럼 (*gespenstisch*)’에는 유령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VI도에 3음이 반음 내려간 화성의 1전위가 쓰였다. 마디50 크레센도하며 점점 상승하여 그녀가 살던 ‘그곳(Stätte)’에는 d단조의 딸림화음이 사용되었고 마디52 ‘아무것도 아닌(Nichts)’에서는 V도에 대한 감7화음이 사용되어 탄식이 절정에 달한다 [악보 6-4].

[악보 6-4] 〈골목에서〉 마디44b-52

44 *sempre piu agitato*

Lichts, 전주 모티브 was webt ihr denn ge - spen - stisch um je - ne Stät - te des Nichts, ...

f *sempre piu agitato*

순차하행 →

b VI6 ii7 ii V7 vii°7/V *

마디53-60의 성악선율은 ‘아무것도 아닌 저곳을 수놓는게냐!(Um jene Stätte des Nichts!)’를 한 번 더 반복한다. 주로 점2분음표 위주로 진행되고 테크레센도로 점차 작아진다. 마디53 무반주로 연주된다. 반주부는 마디54, 56에 앞부분과 동일한 반주 패턴으로 등장하고 마디55, 57 또다시 무반주로 성악선율이 연주된다. 마디58은 성악선율 없이 반주부만 *p*로 나타난다. 이 무반주의 진행은 화자의 공허한 마음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마디59의 반주부는 다시 멈추고 성악선율이 ‘아무것도 아닌!(Nichts!)’을 우울하게 읊조리며 마무리된다.

후주(마디60-65)는 ‘아무것도 아닌’이 끝나는 동시에 시작하고 다시 전주의 부점 리듬이 등장한다. 점2분음표의 내성은 순차 하행(G-F-E-D)하며 크레센도로 점점 커져서 *f*로 으뜸화음의 2전위를 연주 후 다시 작아져서 으뜸화음으로 곡이 끝난다 [악보 6-5].

[악보 6-5] 〈골목에서〉 마디53-65

53
um je - - - ne Stät - - - te

59
des Nichts!

순차하행

f

ii⁷ i V₇ i⁶ - i

7. 제7곡 〈지나가버린〉 (Vöruher)

1) 시의 구성 및 내용

〈지나가버린〉은 6번곡과 마찬가지로 헤벨의 시이다. 시는 총 2연 8행이고 각 행이 4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의 각운은 1연의 1, 3행은 -um, 2, 4행은 -g, 2연의 1, 3행은 -ort, 2, 4행은 -b로 교차운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의 내용은 화자가 그녀와의 행복했던 시간에 대한 꿈을 꾸는 모습이 그려진다. 1연의 화자는 평화로운 숲 속 보리수나무 밑에 누워 그녀의 꿈을 꾸다. 다시는 올 수 없는 시간임을 알기에 더 달콤하게 느껴지는 듯하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나뭇잎으로 뒤덮인 자신을 발견하지만 나뭇잎 대신에 불타는 재로 뒤덮였으면 한다. 이는 그녀를 아직 못 잊었음을 깨닫는 화자의 상황을 그려내고 있다. 시의 원문과 해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문	해석
<p>Ich legte mich unter den Lindenbaum, In dem die Nachtigall schlug; Sie sang mich in den süßesten Traum, Der währte auch lange genug.</p>	<p>나는 보리수 나무 밑에 누웠네, 밤피꼬리가 지저귀는 곳; 내 달콤한 꿈속에서 노래를 불렀고, 오랫동안 넉넉했던 꿈이었네.</p>
<p>Denn nun ich erwache, nun ist sie fort, Und welk bedeckt mich das Laub; Doch leider noch nicht, wie am dunklern Ort, Verglühte Asche der Staub.</p>	<p>이제 나 깨어나고, 피꼬리는 사라지고 그리고 시든 나뭇잎이 나를 덮었다. 그러나 슬프게도, 어두운 곳처럼 먼지의 재 사라져버린 것은 아니었다.</p>

2) 곡의 구성 및 분석

브람스는 2연 8행의 시를 A-B의 2부 형식으로 담아내었다. 빠르기는 ‘매우 느리게(*Sehr langsam*)’이며 박자는 4/4이다. 조성은 F장조로 시작하여 매우 잦은 조성의 변화를 보이다가 다시 원래 조성인 F장조로 돌아와 곡을 마무리한다. 1연의 조성은 달콤했던 꿈을 표현하기 위해 계속 장조로만 바뀌고 (F장조→D^b장조→G^b장조), 노래가 끝나는 간주부터 f단조로 바뀐다. 2연의 조성은 화자가 꿈에서 깨는 순간 a단조로 바뀐다. <지나가버린>의 시의 내용과 곡의 구성을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표 8] <지나가버린> 시의 내용과 곡의 구성

시		곡				
연	내용	형식	구분	마디	박자	조성
1	그녀와의 행복했던 시간을 꿈꾸는 화자	A	전주	1-2	4/4	F장조→D ^b 장조→ G ^b 장조
			a	2b-9a		
			b	9b-20a		f단조
			간주	20b-22a		
2	꿈에서 깨어 슬퍼함	B	c	22b-31a	a단조→B ^b 장조→ b ^b 장조→g ^b 단조→ f단조→F장조	
			d	31b-40a		
			후주	40b-43		

(1) A부분

A부분은 마디1부터 22a까지로 전주(마디1-2), a(마디2b-9a), b(9b-20a), 간주(20b-22a)로 나뉘어져있다. 이 부분은 그녀와의 행복했던 시간을 꿈꾸는 화자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전주는 짧은 2마디이며 동형진행하고 있다. 이 전주가 A부분의 반주 패턴을 설정한다. 오른손의 나른한듯한 3화음과 왼손의 글리산도를 포함한 상행과 하행을 반복하는 아르페지오는 A부분의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화자가 꾸는 달콤한 꿈을 암시한다. *p*로 시작하며 오른손 첫 박자의 불협화음을 테크레센도하며 두 번째 박자에서 해결한다.

마디2b 성악선율이 시작되고 4분음표, 점4분음표, 8분음표를 위주로 진행된다. 이 음형은 3번 반복되고 곡의 도입부부터 G음까지 높이 올라간다. 마디 4 반주부의 왼손에는 반복적으로 상승하는 아르페지오가 점점 등장한다. 마디5 반주부 ‘보리수나무(Lindenbaum)’에는 부속화음이 사용되었다. 마디 5b-6 반주부의 오른손에는 성악선율의 ‘보리수나무’를 모방한 선율이 나타난다.

마디6b-9a 반주부는 2분음표와 4분음표 위주였던 (a)의 선율과 달리 부점리듬과 4분음표 리듬으로 점차 움직임이 많아진다. 왼손의 베이스는 반음계 하행(B-B^b-A)하다가 다시 순차상행(B^b-C)하며 마디9 F장조의 으뜸화음으로 완전 정격 종지(P.A.C)를 한다 [악보 7-1] .

[악보 7-1] 〈지나가버린〉 마디1-9a

Sehr langsam.

Ich leg - - te mich un - - ter den
 Lin - den baum, in dem die Nach - ti - gall schlug; sie

p *poco sostenuto*

poco sostenuto

[밤피꼬리 묘사]

vii°₇/V V IV V₅ ii°₇ vii°₄ V I

브람스는 마디9a-10에서 세 가지의 지시어를 사용하는데 성악선율과 반주부에는 ‘약간 음을 지속해서(*poco sostenuto*)’의 지시어가 사용되고 ‘매우 부드럽게(*molto dolce*)’, ‘*una corda*’는 반주부에만 쓰인다. 성악선율은 ‘밤피꼬리(Nachtigall)’가 지저귀는 것을 묘사하듯이 전체적으로 높다. (b)부분의 반주부 특징은 오른손에 밤피꼬리의 모티브(♪ ♪ ♪ ♪)가 전체에 등장하고 왼손에는 아치형의 아르페지오와 상승하는 아르페지오가 나오는데 아치형의 아르페지오가 2번 나오면 상승하는 아르페지오가 한번 나오는 식으로 계속 반복된다. 마디11-12 성악선율은 4도 도약하여 두 번의 순차하행(F-E^b-D^b-C)을 한다. 반주부가 ‘밤피꼬리’의 선율을 먼저 제시한다. 마디10-12 반주부는 F장조 IV도화음의 3음이 플랫이 된 화성과 VI도 1전위에 근음이 플랫된 화성이 사용되어 슬픈 결말을 암시한다. 성악선율과 같은 선율을 연주하

고 ‘달콤한 꿈(süßesten Traum)’에서는 성악선율보다 높은 음을 연주하여 애절한 느낌을 더하였다.

마디13b-22a에서는 ‘내 달콤한 꿈속에서 노래를 불렀고(Sie sang mich in den süßesten Traum)’를 한 번 더 반복하며 화자의 달콤했던 꿈을 강조한다. 마디14는 분위기가 더 상승된 D^b 장조로 바뀌고 마디15b에서는 G^b 장조로 한 번 더 전조된다. 마디14 성악선율은 6도 도약(C-A^b)하여 마디15 A^b부터 순차하행(A^b-G^b-F-E^b-D^b-C^b-B^b)한다 [악보 7-2].

[악보 7-2] 〈지나가버린〉 마디9b-16a

마디17 성악선율은 6도 아래로 도약(F-A^b)하고 5도 위인 E부터 순차상행(E-F-G)한다. 크레센도하며 *f*의 셈여림으로 마디19에 도달하고 다시 순차하행(G-F-E-D-C)한다. 반주부의 콕 찬 화음이 ‘오랫동안 너넉한 꿈이었네

(Der währte auch lange genug)'를 표현하고 있다. 조성은 점차 F장조로 해결되는 듯 보이지만 마디20 f단조에 이르고 이 조성은 대조되는 다음 내용의 시를 암시한다 [악보 7-3].

[악보 7-3] 〈지나가버린〉 마디16b-22a

16
Traum, der währ - te, der währ - te auch

19
lan - ge ge - nug. Denn nun ich er -

f *p*

$V_{7/V}$ $f : V$

(2) B부분

B부분은 c(마디22b-31a), d(마디31b-40a), 후주(마디40b-43)로 구성되어있고 잠에서 깨어 슬퍼하는 화자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마디22b 성악선율은 C음으로만 진행되며 일시적으로 두 박자 동안 반주가 없다. 이는 레치타티보적인 성격을 띠며 화자의 말에 집중되어 반전되는 분위기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다. 마디23 화자가 꿈에서 깨어날 때 조성

은 a단조로 바뀌고 반주부는 으뜸화음으로 이루어진 *sf*의 강렬한 화성으로 표현된다. 마디23b-24 ‘피꼬리는 사라지고(nun ist sie fort)’의 하행하는 선율(C-B-A)은 피꼬리가 날아간 허망함을 표현한다.

마디24-31a ‘표현을 풍부하게(*espress.*)’의 지시어가 첨가되고 성악선율은 조금씩 움직임이 생긴다. 이는 화자가 꿈에서 깨어 현실을 직시한 것으로 보인다. 마디24 반주부는 당김음을 사용하여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또한 감7 화음이 사용되어 화자의 우울한 상황을 대변해준다. 마디28b ‘그리고 시든 나뭇잎이 나를 덮었다(Und welk bedeckt mich das Laub)’를 동일한 음형으로 더 높은 음에서 한 번 더 반복한다. 마디29 뒤에 B^b장조가 올 것을 예견하는 화성이 있다 [악보 7-4].

[악보 7-4] 〈지나가버린〉 마디22b-31a

22 분위기 반전→ *espress.*
 Denn nun ich er wa - che, nun ist sie fort, und welk be -
 6 6 당김음
 a : i V₇ iv^{3/4} i ii₆

27
 deckt - mich das Laub, und welk be - deckt mich das Laub, doch
 V B^b 예상 *p poco a poco cresc.*

마디31b의 조성은 B^b장조로 바뀌고 (c)에 나왔던 음형이 비슷하게 반복된다. 반주부의 오른손은 3화음으로 화성이 더 풍부해졌다. 왼손의 베이스음은

순차하행(A-G-G^b-F)하며 이는 '어두운(dunklern)'의 표현이다. 마디34에서 b^b단조로 전조되고 마디36에서 g^b단조로 조성이 바뀐다. '어두운'의 화성은 각각 V도 화성이 사용되었고 i도로 해결된다.

마디37은 f단조로 조성이 바뀐다. 성악선율은 f단조 으뜸화음의 아르페지오 선율로 도약하고 '재(Asche)'에서 5도 아래로 도약(G-C)한다. 반주부는 f단조의 으뜸화음으로 성악선율과 함께 상승한다. 당김음의 리듬은 사라지고 짝 찬 셋잇단음표로 연주된다. 이는 아직 화자를 덮고 있는 '먼지의 재(Asche der Staub)'를 표현하며 그녀를 향한 마음이 다 없어지지 않고 아직까지 마음이 불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마디38-40a 성악선율의 음형은 지금까지 나온 적 없던 4분음표로만 이루어진 음형이며 순차하행(F-E^b-D^b-C)한다. 반주부의 오른손은 비화성음과 그에 따른 해결을 반복한다. 왼손은 도약이 많은 4분음표와 2분음표의 음형으로 진행되며 성악선율이 마무리된다 [악보 7-5].

[악보 7-5] <지나가버린> 마디31b-40a

마디40b-43 후주가 시작되고 조성은 F장조로 돌아온다. 꺼지지 않은 재를 표현하는 셋잇단음표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오른손의 내성은 순차하행 (F-E^b-D)한다. F장조의 으뜸화음을 향해 점점 작아지며 *p*로 곡이 끝난다 [악보 7-6] .

[악보 7-6] 〈지나가버린〉 마디40-43

40

Staub.

sf

sf

p

8. 제8곡 〈세레나데〉 (Serenade)

1) 시의 내용 및 구성

〈세레나데〉는 샤크의 시로 작곡된 이 작품의 마지막 곡이다. 이 시는 총 9연 36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연이 4행으로 되어있다. 시의 각운은 모든 연이 1, 3행과 2, 4행이 같은 교차운으로 되어있다.

시의 내용은 헤어진 그녀를 다시 찾아가 세레나데를 부르는 화자의 모습을 담고있다. 8연 1행의 ‘당신은 정말 그를 완전히 잊은건가요?(Hast du ihn so ganz vergessen?)’에서 화자가 그녀와 헤어진 사이임을 유추할 수 있다. 1, 2연은 그녀가 잠든 고요한 밤의 이미지를 그려내고 화자의 떨리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3연은 화자가 그녀의 방 창가에서 치터를 연주하기 시작하고 4-6연에서 화자가 그녀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치터의 음률로 대신 전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시의 원문과 해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문	해석
Leise, um dich nicht zu wecken, Rauscht der Nachtwind, teure Frau! Leise in das Marmorbecken Gießt der Brunnen seinen Tau.	조용하게, 그녀를 깨우지 않도록, 밤바람아 불어가라, 사랑하는 여인에게! 조용하게 대리석 수조에 우물은 이슬을 흘린다.
Wie das Wasser, nedertropfend, Kreise neben Kreise zieht, Also zittert, leise klopfend, Mir das Herz bei diesem Lied.	원을 그리며 아래로 방울져 떨어지는 물처럼 이 노래에 내 마음도 조용하게 두근거리며 떨린다.
Schwingt euch, Töne meiner Zither, Schwingt euch aufwärts, flügelleicht; Durch das rebumkränzte Gitter In der Schönen Kammer schleicht.	날아올라라, 내 치터의 음들아, 위쪽으로 날아올라라, 가벼운 날개로; 치터의 덩굴들이 엮여 생긴 격자를 지나 아름다운 침실로 살금살금 들어가라.

<p>“Ist denn, liebliche Dolores”, Also singt in ihren Traum “In der Muschel deines Ohres Für kein Perlenwörtchen Raum?”</p> <p>Denk der Laube, dicht vergittert, Wo, umrankt von Duftgesträuch, Ihr in Seligkeit gezittert, Wie die Blätter über euch!</p> <p>War der Platz doch still und sicher Und kein Zeuge hat gelauscht; Selten, daß ein abendlicher Vogel durch das Laub gerauscht.</p> <p>O dem Freund nur eine Stunde, Wo dein Arm ihn heiß umschlingt, Und der Kuß von deinem Munde Feurig bis ans Herz ihm dringt!</p> <p>Hast du ihn so ganz vergessen? Einsam harrt er am Balkon, Überm Wipfel der Zypressen Bleicht des Mondes Sichel schon.</p> <p>Wie das Wasser, nedertropfend, Kreise neben Kreise zieht, Also zittert, leise klopfend, Ihm das Herz bei diesem Lied.</p>	<p>“무슨 일이에요, 사랑스런 돌로레스” 하고 그녀의 꿈속에서 노래를 불러라 “조개 같은 당신의 귀에 진주 같은 단어를 위한 방이 하나도 없어요?”</p> <p>앞사귀들을 두껍게 감싸고 안개 낀 무성한 덩굴이 장식한 그곳에서, 그들은 행복감에 떨었다 그 덩굴 위에 나뭇잎처럼!</p> <p>그곳은 여전히 고요하고 안전했다. 그리고 몰래 지켜보는 사람도 없었다; 그날 밤은 아무도 없었다. 새만이 나뭇잎 속에서 바스락거렸다.</p> <p>오 친구에게 단지 한 시간만 주세요, 그를 당신의 팔로 격렬하게 휘감고, 그리고 당신의 입술이 입 맞추고 그의 심장까지 뜨겁게 파고들 그 한 시간!</p> <p>당신은 정말 그를 완전히 잊은건가요? 발코니에서 외롭게 기다리고 있는, 그동안 측백나무 꼭대기에는 낮 모양의 아름다운 달이 창백해지고 있어요.</p> <p>원을 그리며 아래로 방울져 떨어지는 물처럼 이 노래에 그의 마음도 조용하게 두근거리며 떨린다.</p>
--	--

2) 곡의 구성 및 분석

브람스는 9연 36행인 샹크의 시를 5연과 6연을 생략해⁴¹⁾ A-B-A-C-C'-A-B로 담아내었다. 외형적으로 변형된 론도의 형식과 유사하다. 이 곡의 빠르기말은 세레나데의 분위기에 맞게 ‘우아하게’가 사용되었다. 박자는 C, C' 부분은 9/8박자가 쓰였고 나머지 A, B부분은 6/8박자로 진행된다. 조성은 a단조로 시작하고 조성의 변화가 빈번하게 일어나다가 다시 A장조로 돌아와서 곡을 마무리한다. <세레나데>의 시의 내용과 곡의 구성을 정리하면 [표 9]과 같다.

[표 9] 8곡 <세레나데> 시의 내용과 곡의 구성

시		곡				
연	내용	형식	구분	마디	박자	조성
1	그녀가 자고 있는 조용한 밤의 이미지	A	전주	1-2	6/8	a단조
			a	3-11a		a단조→d단조
			간주	11b-14		a단조
2	흔들리는 물처럼 떨리는 화자의 모습	B	b	15-23a	6/8	a단조→E장조
			간주	23b-25		E장조→a단조
3	치터를 연주하는 모습	A	a	26-34a	6/8	a단조→d단조
			간주	34b-37a		d단조→F장조
4	치터의 음들이 전하는 말	C	c	37b-48a	9/8	F장조→a단조→C장조
5	한 시간만 달라고 애원함	C'	c'	48b-60a	6/8	F장조
			간주	60b-63		F장조→a단조
6	밤새 기다리는 화자의 모습	A	a	64-72a	6/8	a단조→d단조
			간주	72b-74		a단조
7	흔들리는 물처럼 떨리는 화자의 모습	B	b	75-86a	6/8	d단조→A장조→ d단조→a단조→ B ^b 장조→a단조
			후주	86b-91		a단조→A장조

41) Natasha Loges, *Brahms and His Poets*, 347.

(2) B부분

B부분은 b(마디15-23a), 간주(마디23b-25)로 나뉘어져 있다. 화자가 본인의 마음을 떨어지는 물방울에 비유하여 세레나데를 부르기 전의 떨리는 마음을 표현한 부분이다. 마디15의 하행하는 성악선율과 8분음표 반주는 물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을 담아내고 16분음표 스타카토는 물방울이 원을 그리는 모습을 묘사한다. 마디19는 a단조의 딸림조인 E장조로 전조된다. 마디20의 성악선율에서는 부점 리듬이 등장하고 화자의 두근거리는 마음을 그려내고 있다. 스타카토로 진행되던 반주부는 레가토로 바뀌고 반주부의 오른손은 성악선율보다 3도 높게 진행된다. 마디21-22에서는 반복되는 ‘마음(das Herz)’을 향해 상행하며 *f*에 도달한다. 이는 곧 세레나데를 불러야 하는 화자의 떨림이 극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왼손의 상승하는 아르페지오 또한 긴장된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반주부에도 부점 리듬이 나오며 간주에서 점점 작아진다 [악보 8-2].

[악보 8-2] 〈세레나데〉 마디15-25

두근거림 묘사

Wie das Was - ser nie - der-trop - - fend Krei - se ne - ben Krei - se zieht, al - - so zit - - tert lei - - se klopf - fend

p dolce *sostenuto legato*

a: i6 E: vi

21

mir das Herz, das Herz bei die - - sem Lied.

f *dimin.*

(3) A부분

A부분은 A(마디26-37a), 간주(37b-48a)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자가 치터를 연주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형식은 A부분과 비슷하지만 성악선율의 도입부는 앞부분보다 높은 음역대이다. 이는 흥분된 화자의 마음이 아직 가라앉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악보 8-3].

[악보 8-3] 〈세레나데〉 마디26-29

26
Schwingt euch, Töne meiner Zither, schwingt euch aufwärts, flügelleicht;
a: i

(4) C부분

C부분은 c(마디37b-48a)로 구성되어 있고 치터의 음률들이 화자의 마음을 대신 전하고 있다. 박자는 9/8로 바뀌고 조성은 F장조로 전조되었다. 마디38 성악선율의 꾸밈음은 ‘사랑스런(liebliche)’을 표현하고 반주부는 오른손의 화음과 왼손의 하행하는 셋잇단음표로 바뀌었으며 ‘부드럽게’의 지시어 사용으로 세레나데의 분위기를 묘사한다. 마디39b-41a의 순차하행(F-E-D-C-B^b-A-G-F-E-D-C-B^b-A-G)하는 성악선율과 반주부는 ‘그녀의 꿈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모습을 나타낸다.

마디41b-45a의 성악선율은 동일한 선율이 반복되고 마디43b 조성은 a단조

로 전조된다. 반주부는 성악선율보다 6도 높은 음을 2도 화성으로 연주한다. 마디45b-47의 조성은 C장조로 전조된다. ‘진주 같은 단어를 위한 방(Für ke in Perlenwörtchen Raum)’이 반복되고 마디44보다 더 긴 박으로 표현되었다 [악보 8-4] .

[악보 8-4] 〈세레나데〉 마디36-47

36
Ist denn, lieb - - li - che Do - lo - res, al - so singt in ih - - ren Traum, in der

p dolce 꿈속으로 들어감→

F : IV₆

42
Mu - - schel dei nes Oh - res für kein Per - len - wört - - chen Raum, für kein Per - len - wört - - - chen Raum?

pp

a : iv C : vi₄

(5) C'부분

C부분은 c'(마디48-60a), 간주(마디60a-63)로 나뉘어져있다. 화자가 한 시간만 달라고 애원을 하는 내용이며 이 곡에서 가장 클라이맥스인 부분이다. 조성은 다시 F장조로 바뀌고 ‘한 시간(eine)’을 강조하기 위해 꾸밈음이 사용되었다. 마디54a까지 성악선율은 C부분과 동일하고 마디50b-52 반주부의 오른손은 3도 더 높게 진행된다.

마디54b-60a ‘그의 심장까지 뜨겁게 파고들 그 한 시간(Feurig bis ans He

rz ihm dringt!)’이 총 3번 반복된다. 마디54b-56a 성악선율은 F로 시작하고 6도 도약과 5도 도약을 통해 흥분된 상태를 묘사한다. 반주부의 오른손은 셋잇단음표 안에서 순차상행(A-B^b-C-D-E^b-F-G-A)하고 왼손은 옥타브를 사용해 순차상행(F-G-A-B^b-C-F-E^b-F)하며 ‘심장까지 뜨겁게 파고들’을 표현하고 있다. 마디56b-60a의 성악선율은 4도 도약과 6도 도약을 하는데 이는 화자가 애원하는 모습을 그려낸 듯하다.

마디60 간주가 시작되고 반주부 오른손의 선율은 반음계 진행(B-C-C[#]-D-D[#]-E)을 하고 아직 가라앉지 않은 화자의 감정을 묘사한다. F장조는 점차 a단조를 향해간다 [악보 8-5] .

[악보 8-5] <세레나데> 마디48-64

O dem Freund nur ei - ne Stun - de wo dein Arm ihm hriß um - schlingt, und der

Kuß von dei - nem Mun - de feu - rig bis ans Herz ihm dringt, feu - rig bis ans Herz ihm

dringt, feu - rig bis ans Herz ihm dringt!

반음계 진행 >

dimin.

(6) B부분

B부분은 B(마디75-86a), 후주(86b-91)로 이루어져 있고 내용은 앞의 B부분(2연)과 같다. 구조 또한 앞부분과 동일하지만 조성이 빈번하게 바뀐다. 시작 부분은 앞의 B부분과 다르게 d단조로 시작하고 마디78b A장조로 전조한다. 마디81 잠시 d단조의 조성을 보이다가 마디82 a단조로 다시 바뀐다. ‘이 노래에 그의 마음도(Ihm das Herz bei diesem Lied)’를 한 번 더 반복할 때의 성악선율은 유난히 높은 음으로 올라간다. 이 드라마틱한 선율 뒤에 a단조에 도달한다 [악보 8-6] .

[악보 8-6] <세레나데> 마디75-86a

75
 Wie das Was-ser nie-der-trop - fend Krei - se ne - ben Krei - se zieht, al - - so zit - - tert lei - - se klopf - - fend
p dolce *sostenuto legato*
 d : i A : vi⁶₄

81
 ihm das Herz, das Herz bei die - - sem Lied, ihm das Herz bei die - - - sem Lied.
 d : i⁶ a : i⁶ B \flat : V $\frac{3}{2}$ a : i⁶

후주는 a단조로 연주되고 성악선율이 끝남과 동시에 시작된다. 오른손의 4분음표와 8분음표를 사용한 선율은 B부분에 나타난 레가토 선율을 연상시키며 왼손에는 치터의 선율이 나타난다. 마디89 헤미올라가 사용되고 단조로 끝난 성악선율과는 달리 마디90-91은 A장조의 으뜸화음으로 연주되어 사랑에 대한 열린 결말을 암시한다 [악보 8-7].

[악보 8-7] 〈세레나데〉 마디86-91

86

Lied.

헤미올라

치터(Zitter)의 음향

A: I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브람스의 《8개의 노래와 가곡들》(Op.58)을 분석하였다. 그 당시 브람스가 슈만과 클라라의 셋째 딸인 율리에게 실연을 당한 후인 1871년 완성되었기에 이 작품에는 그의 개인적인 실연의 상처가 담겨있음을 알 수 있다. 브람스는 영감의 원천으로 시를 사용했으며 주의 깊은 가사의 표현에 대해 항상 생각했다. 브람스는 때때로 다른 작곡가나 시인에 의해 변형이 된 시를 사용하였고 이 작품에서는 브람스가 직접 시를 생략하기도 했다.

제1곡 〈눈먼 암소〉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화자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반음계적인 성악선율과 급격한 도약은 애타는 마음을 표현한다. 반주부에는 곡의 처음부터 끝까지 16분음표를 사용하여 분주한 화자의 상태를 나타내며 당김음과 감7화음은 불안한 심리 상태를 표현한다.

제2곡 〈비 내리는 동안〉에서는 연인과 같이 있고 싶은 마음에 비가 더 강하게 내리길 바라는 화자의 귀여운 마음을 묘사하고 있다. 프레이징이 길고 도약이 많은 성악선율과 빈번하게 변화는 박자는 들떠있는 화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반주부에서는 비가 툭툭 떨어지는 모습을 묘사하는 스타카토 반주가 계속 등장한다. 그녀와 같이 있는 장면은 장조로, 그녀가 떠나가는 장면은 단조로 표현하여 대조를 명확하게 한다.

제3곡 〈냉담한 여인〉에서는 새침하고 쌀쌀맞은 여인의 태도 때문에 마음이 쓸쓸한 화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우아하게(Grazioso)’라는 형용사 지시어는 냉담하지만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묘사한다. 반음계의 선율과 단조차용화음은 괴로운 상황을 표현해주며 단조에서 메이저 코드의 사용은

애처롭고 슬픈 마음을 더 깊어지게 한다.

제4곡 〈오 오라, 사랑스러운 여름밤아〉에서는 화자의 기쁨이 극에 달하는 곡으로 그녀와의 행복한 밤을 보내는 내용을 담고있다. 성악선율의 급격한 도약과 잦은 조성의 변화는 화자의 흥분된 상태를 표현하고 있으며 비밀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기 위해 *p*의 셈여림을 중심으로 연주된다.

제5곡 〈우울한 마음〉에서는 괴로운 삶을 벗어나 안식을 찾는 화자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으며 장송곡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선율은 지쳐있는 화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저음의 반주부는 우울하고 무거운 마음을 나타낸다.

제6곡 〈골목에서〉에서는 그녀가 살았던 골목을 바라보는 화자의 비통한 마음을 묘사하고 있다. *p*부터 *f*까지 이르는 셈여림을 따라 화자의 감정도 급변하며 반감7화음과 감7화음이 자주 사용되어 쓸쓸한 마음을 표현해준다.

제7곡 〈지나가버린〉에서는 그녀와의 달콤했던 시간들이 꿈에 나오고 꿈에서 깨었을 때 현실을 직시하고 괴로워하는 화자의 모습이 담겨있다. 서정적인 반주와 급격한 변화와 함께 등장하는 격정적인 반주는 화자의 꿈과 현실의 괴리감을 더욱 극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제8곡 〈세레나데〉에서는 그녀를 다시 찾아가 세레나데를 부르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변형된 론도형식이며 치터를 연주하는 듯한 반주부의 스타카토는 세레나데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브람스는 민요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가곡들은 민속풍의 선율이나 민속시에 바탕을 둔 가곡들이 많았다. 뚜렷한 마디구분과 유절형식의 선호는 이러한 민요의 단순성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브람스는 주로 유절형식이나 변형된 유절형식을 사용했다. 그는 반복되는 음악 안에서 다양한 효과를 내기 위해 ABA'의 3부형식도 사용했는데 A'부분은 A부분과 동일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B부분도 흥미로운 변형을 보여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속음, 대위법, 주제의 확대와 같은 바로크 기법을 자주 사용하였고 이러한 고전적인 기법을 그의 낭만주의 음악에 융합시킨 것을 볼 수 있었다. 브람스의 리듬적인 기법에서는 당김음과 헤미올라가 그의 가곡에서 신선하고 표현력 있게 들리는 역할을 한다. 브람스는 이명동음, 먼 조로의 조성 변화 같은 대담한 화음적인 기법도 자주 사용하였다.

《8개의 노래와 가곡들》은 연가곡은 아니지만 연가곡적 성격이 강하다. 왜냐하면 8곡 모두 사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곡을 쓴 듯 기승전결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화자가 그녀를 찾으려 떠도는 내용의 1곡 〈눈먼 암소〉로 시작해 그녀 때문에 울고 웃는 2-4곡, 그리고 그녀와 헤어져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그려낸 5-7곡, 마지막으로 8곡 〈세레나데〉는 그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는 화자의 모습까지 담겨있다. 브람스는 슈베르트와 슈만에 비해서는 시보다 음악에 더 비중을 둔 작곡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초기의 민요풍 가곡보다 훨씬 감정표현이 세밀하다. 또한 ‘가사 그리기’를 굉장히 잘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그가 그 당시에 사랑에 심취했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를 보아 이 작품은 내용상 연가곡으로도 볼 수 있다.

본 논문을 통해 브람스가 시와 음악의 관계에서 음악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아직 연구되지 않은 브람스의 가곡에 많은 연주자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브람스의 가곡이 보다 더 많이 연구되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사전 및 단행본

- 김용환. 『19세기 음악』. 서울: 모노폴리, 2018.
- 김희보. 『세계문학사 작은사전』. 서울: 가람기획, 2002.
- 미노루, 미시하라. 『클래식 명곡을 낳은 사랑 이야기』. 고은진 옮김. 서울: 문학사상사, 2007.
- 민은기, 박을미, 오이돈, 이남재. 『서양음악사 2』. 파주: 음악세계, 2014.
- 삼호뮤직[편]. 『클래식음악용어사전』. 서울: 삼호뮤직, 2001.
- 서울대학교 서양음악연구소. 『Dictionary of music』. 서울: 음악세계, 2001.
- 심성태. 『음악용어사전』. 서울: 현대음악출판사, 1996.
- 유강호, 광정란. 『비엔나 칸타빌레』. 서울: 삼성출판사, 2008.
- 피종호. 『독일시와 가곡』. 서울: 유로서적, 2007.
- Bozarth, George S. “Brahms, Johannes”, In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edited by Stanley Sadie, Second Edition. New York: Grove's Dictionaries Inc., 2001. Vol. 4: 180-216.
- Gorrell, Lorraine. *The nineteenth-century german lied*, 심송학 역. 서울: 음악춘추사, 1998.
- Kalbeck, Max. *Johannes Brahms. Eine Biographie in vier Bänden, Band 2, 2 Halbband*, Hamburg: Severus, 2013.
- Pascall, Robert. *Biographical, Documentary and Analytical Studies*, Cambridge, U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 Loges, Natasha. *Brahms and His Poets: a handbook*, Woodbridge,

UK: Boydell Press, 2017.

Hebbel, Christian Friedrich. *Gedichte*, North Charleston: CreateSpace Independent Publishing Platform, 2013.

Candidus, Karl August. *Vermischte Gedichte*. Leipzig: S. Hirzel Verlag, 1869.

2. 학술지 및 학위논문

권태룡. “보지 못하는 답답함, 놀이로 승화시키다. 까막잡기놀이.” 『문화재청』 (2015) : 33-34.

김명희. “브람스의 「Lieder und Gesänge op.57」에 대한 분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김은영. “볼프의 『아이헨도르프 가곡집』 중 「악사」, 「허풍쟁이」, 「행운의 기사」, 「학자」의 분석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박미향. “19세기 예술가곡 연구 : 시와 음악의 관계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박혜원. “브람스 《5개의 가곡집 Op.106》의 분석적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이희정, “브람스의 가곡 「네 개의 엄숙한 노래 op.121」에 관한 분석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지승환. “브람스 《9개의 노래와 가곡 Op.32》 분석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황승경. “눈으로 듣는 음악 : 클라라가 사랑한 슈만, 클라라를 사랑한 브람스” 『신동아』 6월 호 (2012) : 552-559.

3. 악보 및 음반

Johannes Brahms, *Brahms Songs Vol.3 for High Voice and Piano*
(Ger.) Frankfurt/m.·Liepzig·London·New York: C. F. Peters.
Andreas Schmidt, baritone. *Brahms, J.: Lieder* (Complete Edition, Vol. 5)
/Sender Freies Berlin. (2000).

4. 인터넷 자료

“Brahms, Op.58”. <http://www.kellydeanhansen.com/opus58.html>

[2018년 9월 6일 접속].

“Brahms, Op.58”. <http://www.lieder.net/> [2018년 9월 14일 접속].

“Brahms, Op.58”. <http://www.musicandHistory.com/composers/7817>

[2018년 9월 10일 접속].

“Adolf Friedrich von Schack”.

https://en.wikipedia.org/wiki/Adolf_Friedrich_von_Schack

[2018년 10월 2일 접속].

“칼라브리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49257&cid=40942&categoryId=34](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49257&cid=40942&categoryId=34083)

[083](#) [2018년 9월 29일 접속].

ABSTRACT

An Analysis of Brahms's 《8 *Lieder und Gesänge*》 (Op.58)

Jeong, So Hyun

Department of Collaborative Piano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In this paper, the analytical study of Johannes Brahms's 《8 *Lieder und Gesänge*》 (Op.58) was written. 《8 *Lieder und Gesänge*》 (Op.58), which consists of eight tracks: It has eight tracks, 〈*Blinde Kuh*〉, 〈*Während des Regens*〉, 〈*Die Spröde*〉, 〈*O komme, holde sommernacht*〉, 〈*Schwermut*〉, 〈*In der Gasse*〉, 〈*Vorüber*〉, 〈*Serenade*〉, and was composed from 1868 to complete in 1871.

This work contains his emotions because Brahms was composed after being disappointed by Julie. He's better at drawing lyrics than any other Brahms song, because he was in love at the time. Starting with the first song 〈*Blinde Kuh*〉, the fourth song 〈*O komme, holde sommernacht*〉 full of happiness, fifth song 〈*Schwermut*〉 is saddened by the loss she's lost, the eighth song 〈*Serenade*〉 ends with an entreaty for her. The contents of the poem give the impression that it consists of a story.

This paper is focused on how Brahms expressed the contents of these

poems musically. In the first song, *〈Blinde Kuh〉*, Brahms expresses impatience through a vocal melody with a chromatic scale, a sudden leap, constant 16-minute notes and dotted of the accompaniment. In the *〈Während des Regens〉*, the continuous high-pitched vocal melody and the steady staccato of the accompaniment depict an image titled “Tone Painting”. In the third song, *〈Die Spröde〉*, the borrowed chord of the minor key and chromatic scale melody represent the speaker’s mind. In the fourth song, *〈O komme, holde sommernacht〉*, Brahms described secret atmosphere with the dynamic of *p*. In the *〈Schwermut〉*, the vocal melody that runs up and down sequentially and the low-pitched accompaniment that expresses the heart of the deceased speaker are in line with the feeling of the title. In the sixth song, *〈In der Gasse〉*, the vocal melody of relatively short phrasing and simple accompaniment represent emptiness. *〈Vorüber〉*, the seventh song, expresses a sweet dream, and presents a dramatic contrast of poetry by sudden change of accompaniment. In the *〈Serenade〉*, the last song, the vocal melody is monotonous and sequential. In addition, the accompaniment of staccato imitates the sounds of the ‘zitter’ and describes the song of love as a whole.

《8 Lieder und Gesänge》 features Brahms’ musical characteristics, the strophic form, the ternary form and his affection for folk songs. These songs also have features of Baroque techniques such as continuous sound and counterpoint and rhythmic features like syncopation and hemiola. In particular, the background of this work shows the inner world of Brahms’ broken heart. Unlike his other songs, it can be said that “Tone Painting” is well illustrated. Although it is not a cycle song, the whole story gives an impression that it is a cycle song.